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가을호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목차

Ⅰ. 테마진단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채원영) / 1

Ⅱ. 글로벌 이슈와 뉴스

미국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 사례와 시사점 (김세중) / 19

이슬람 금융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이정환) / 27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시장 중심 M&A 확대 현황 (이아름) / 38

Ⅲ. 해외보험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채원영) / 48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 54

미국 동향 (김세중)

영국 동향 (이정환)

일본 동향 (이아름)

중국 동향 (이소양)

Ⅰ. 테마진단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업권별 성과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의 수익성 회복속도가 은행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금융위기로 전세계 보험업 수익성이 은행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은행업과 보험업의 2009년에서 2012년 평균 수익성은 2006~2007년 평균 수익성의 58%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험업에 미친 금융위기의 영향이 변액연금, 금융보증 등 일부 사업에 국한되었고 운용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임. 신흥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본수익률(ROE)은 전산업 수준보다는 낮으나 은행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은행업의 경우,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글로벌 자본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와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보험업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이 은행업보다 적어 은행업에 비해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장기보험 등 성장동력 소진, 규제강화 등에 따른 수익성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1. 은행업과 보험업의 수익성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보험업의 수익성은 ROE기준으로 -8.7%, ROA기준으로 -0.6%로 급락하였음.

○ ROA와 ROE로 평가한 수익성은 2006년과 2007년 상업은행과 보험업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은행업보다 보험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음.

- 2006~2007년 평균 수익성은 ROA기준으로 은행 0.7%, 보험업 1.0%였고 ROE기준으로 은행 15.8%, 보험업 14.1%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수익성 회복 속도는 보험업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2009~2012년 전세계 은행업과 보험업의 평균 ROE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6~2007년 평균 ROE의 58% 수준까지 회복하였음.

○ 그러나 2008년 당시 보험업권의 수익성 하락폭이 은행권에 비해 더 컸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판단됨.

〈표 1〉 전세계 업권별 ROA,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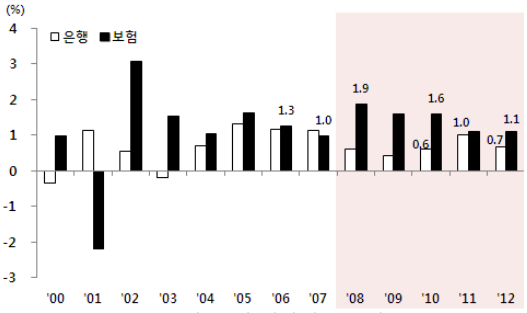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SCI 금융	ROA	1.0	0.7	**-0.2**	0.4	0.6	0.5	0.6
	ROE	16.9	12.7	**-3.1**	5.9	9.3	7.4	8.2
MSCI 상업은행	ROA	0.8	0.7	**0.1**	0.3	0.5	0.6	0.5
	ROE	17.8	13.9	**2.5**	7.3	10.3	10.3	9.0
MSCI 보험	ROA	1.1	1.0	**-0.6**	0.6	0.8	0.7	0.7
	ROE	14.7	13.4	**-8.7**	7.7	9.0	7.9	8.0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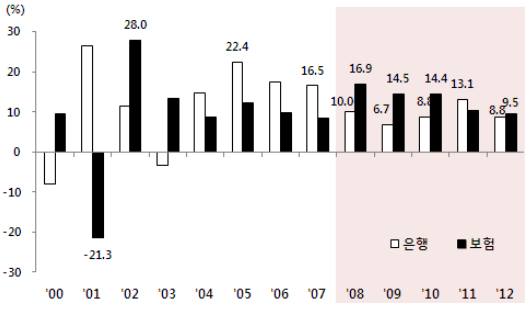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이후 보험업의 수익성이 은행업의 수익성보다 높아졌음.

〈그림 1〉 국내 은행 및 보험업 ROA[1] 추이



주: 1) MKF 2000 은행, 보험 섹터의 ROA임.
자료: Fnguide.

〈그림 2〉 국내 은행 및 보험업 ROE[1] 추이



주: 1) MKF 2000 은행, 보험섹터의 ROE임.
자료: Fnguide.

○ 은행업의 수익성은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업의 경우 2008년 ROA는 1.9%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4~2007년 평균 ROA(ROE)는 은행 1.1%(17.8%), 보험업 1.2%(9.8%)였으나 2009~2012년 평균 ROA(ROE)는 은행 0.7%(9.4%), 보험업 1.3%(12.2%)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은행업과 보험업의 수익성과 주가순자산비율(PBR) 회복 속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본시장의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수익성은 자본수익률(ROE)로 평가하였음.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수익성에 대한 평가

가. 보험업

■ 글로벌 보험업의 수익성이 2008년 급격히 하락했던 원인은 순이익 감소로 인한 자본 악화와 미실현 손실의 증가 등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미국[1] 생명보험산업의 실현손실 규모는 596억 달러로 2008년 522억 달러의 당기순손실 발생의 원인이었고 미실현손실 638억 달러와 더불어 미국 생명보험산업 총자본[2]의 6%(약 2,530억 달러)를 감소시켰음.

- 596억 달러의 실현손실은 주로 주택저당채권(MBS) 등 장기채권 가치하락과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기록한 채권 및 주식매도가 원인이었음.
- 미실현손실의 대부분은 보통주 가치 감소와 JV 등 기타 투자가치 감소로 나타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2008년 당기순이익은 2007년 당기순이익에 비해 94% 감소한 37억 달러였고, 자본규모는 2007년 대비 12% 감소한 4,66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1) OECD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상각과 채권가치 손실(Write Down and Credit Losses)은 약 2,61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미국 보험회사의 손실이 1,890억 달러임. 미국 보험산업에 대한 분석이 전세계 보험산업 분석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나 유사성은 클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 보험산업을 분석하였음.

2)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이익잉여금의 합계로 정의함.

- 미실현손실 856억 달러, 실현손실 255억 달러, 보험영업손실 196억 달러이며 이익의 급격한 감소를 겪은 손해보험회사들은 주로 금융보증, 주택저당채권 보증 회사 등임.

■ 보험업의 수익성이 은행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던 원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실자산, 부실자산에 대한 노출 정도, 일부 보험회사에 집중된 손실 그리고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이익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부실자산 상각과 (채권)투자손실 규모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미국 1,889억 달러, 유럽 623억 달러, 기타 국가 31억 달러인 총 2,543억 달러 규모임.

- 반면 은행과 증권업의 경우 미국 6,788억 달러, 유럽 4,890억 달러, 기타 국가 623억 달러 규모인 총 1조 2,301억 달러임.[3)]
- AIG, ING, Ambac Financial Group, Aegon 등 4개 회사가 전체 부실자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충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본감소는 주식 및 채권발행, 지주회사의 지분출자,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회복되었음.

- 미국의 경우 TARP, Commerical Paper Funding Facility 등으로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자본부족을 지원하였음.

○ 2009년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개선으로 흑자로 전환하였음.

- 2009년 당기순이익은 214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당기순이익 319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낮은 수준이나, 2008년 당기순손실 522억 달러에서 약 700억 달러 회복한 수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주식, 구조화채권 등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노출이 보험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4)]

○ 미국 보험산업의 투자상품별 투자손익 비중 추이를 보면 파생상품 투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손실을 기록했으나 수익비중은 미미하였음.

---

3) OECD(2010).

4) 글로벌 금융위기의 보험영업측면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3.6).

○ 주택저당채권(MBS)의 비중은 2002년부터 2011년간 생명보험산업 인정자산의 15~18% 수준이며, 손해보험산업 인정자산의 10~13% 수준으로, 채권비중에 포함되어 있음.

〈표 2〉 생·손보사의 투자상품별 투자 수익 비중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동산	생보	15.4	14.7	14.3	13.6	13.1	12.8	13.5	13.5	12.5	12.3
	손보	4.2	4.2	4.0	3.3	3.1	3.2	3.5	3.8	3.7	3.7
주식	생보	2.8	2.6	2.8	3.1	3.4	4.7	3.6	2.1	2.2	2.2
	손보	15.3	14.6	12.8	12.9	12.8	12.3	13.3	12.6	11.8	12.2
채권	생보	73.8	74.3	74.3	73.5	72.1	70.6	73.3	77.7	76.5	75.7
	손보	72.7	70.1	71.5	64.3	66.6	67.0	71.5	76.5	74.3	69.8
파생 상품	생보	-0.6	-0.3	-0.2	-0.3	0.8	0.3	-1.2	-1.7	0.4	0.9
	손보	0.2	0.4	0.1	0.0	-0.1	0.0	-0.1	-0.1	0.0	0.0
기타	생보	8.5	8.7	8.8	10.1	10.5	11.6	10.8	8.3	8.3	8.9
	손보	7.6	10.7	11.5	19.4	17.6	17.4	11.8	7.2	10.2	14.3

자료: GAO(2013.6)를 재인용함.

■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판매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미쳤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급락으로 금융보증이나 주택담보대출 보증 사업을 하던 보험회사들의 자본손실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생명보험산업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은 약 32% 수준임.

〈표 3〉 변액연금과 최저보증옵션 특약 상품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변액연금 신규 판매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비중	최저보증옵션을 선택한 계약자 비중
2006	160.4	86	76
2007	184.0	91	77
2008	155.7	91	83
2009	128.0	90	89
2010	140.5	89	88
2011	157.9	90	88
2012	147.4	85	88

자료: LIMRA, GAO(2013.6)를 재인용함.

○ 최저보증위험관리를 위한 헤징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2007년 후반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판매된 변액연금상품 중 최저보증옵션을 특약으로 갖고 있는 상품 비중이 86% 수준이었고 2012년까지 그 판매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감.

○ 금융보증과 주택담보대출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2008년 이후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금융보증 보험사 및 주택담보대출보증 보험사의 평균 손해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융보증	손해율	89	77	75	83	65	69	90	77	83	80
	합산비율	118	104	101	111	92	97	118	105	113	109
주택담보대출보증	손해율	84	72	79	88	68	82	102	105	110	103
	합산비율	110	96	103	112	93	103	123	123	135	135

주: 1) 2002~2011년간 금융보증과 주택담보대출보증 보험에서 순수입보험료(net written premiums)가 양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함.
2)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회사별 손해율 및 합산비율의 평균으로 구하지 않고, 산업 전체의 손해율 및 합산비율을 구함.

자료: GAO(2013.6)를 재인용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보험산업에 대한 충격은 최저보증옵션부 변액연금, 금융보증, 주택담보대출보증과 같은 일부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보험사업부문으로 전이가 크지 않아 보험산업의 손실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5)]

○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감독당국과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정보공유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금융보증 사업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보험회사의 유동성 제약의 원인으로 평가되었던 주식대차거래(Security Lending) 사업 비중을 생명보험회사 준비금의 10%로 제한함.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동화기관 없이 발행된 주택저당증권(Non Agency RMBS)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위험계수를 낮춰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음.[6)]

5)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3.6), 『Impacts and Regulatory Response to 2007-2008 Financial Crisis』.

나. 은행업[7)]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산업은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고 있음.

○ 전세계 평균 자기자본비율(Tier 1)은 2007년 8.2%에서 2011년 11.7%로 개선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7.5%에서 2011년 12.7%로 크게 개선되었음.

○ 레버리지비율은 2008년 이전 평균 21배에서 2011년 17배로 둔화되었음.

■ 은행업의 수익성 회복세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진했던 비용효율성 개선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2000~2010년 은행업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2011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3% 수준으로 둔화되었음.

- 특히 선진국의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2000년대 10년간 2%에서 2010~2011년간 1%로 감소하였고, 유럽의 경우 0%에서 -1%로 감소하였음.

○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평균영업비용이 악화되었는데, 수익대비 영업비용(Cost to Income ratio) 비율이 2010년 58.3%에서 2011년 59.8%로 악화되었고, 자산대비 영업비용 비율도 2007년 1.8%에서 2011년에도 1.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업 성장성의 지역별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은행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은행업의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Fundamental Skepticism)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12년 2분기 선진국 0.8배, 신흥국 1.5배로 나타나 2007년 3.8배(신흥국), 1.6배(선진국)의 절반으로 하락하였음.

- 2012년 2분기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의 100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BR이 1 이하인 은행의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66개, 신흥국의 경우 41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6) 유동화기관 없이 발행된 주택저당증권(Non-Agency RMBS)은 정부기관인 페디메, 프레디메 등이 유동화 기관으로 참여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한 주택저당증권임. 신용도가 낮아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이 컸던 것으로 평가됨.

7) 맥킨지사(2012.10), "The Tripple Transformation, 2nd McKinsey Annual Review on the Banking Industry"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음.

- 2배 이상을 기록한 은행들은 선진국의 경우 7개, 신흥국의 경우 20개로 조사되었음.

○ 주가순자산비율(PBR) 하락의 원인은 수익성 악화, 자본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Dilution)에 대한 우려, 거시경제 불확실성, 추가적인 부실자산 상각 우려 등임.

■ 그리고 수익성 악화추세는 글로벌 자본 규제 강화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G-SIFI에 대한 자본 및 리스크관리 규제와 은행권에 대한 글로벌 규제인 바젤 Ⅲ , 그리고 미국의 도드-프랭크법과 영국의 링-펜스법 등 각국별 규제 강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바젤Ⅲ 도입은 주요국 상업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0년 ROE기준으로 프랑스 2.9%p(13.5%), 영국 2.8%p(13.6%), 독일 2.1%p(6.6%) 하락하였음.

3. 금융업권별 회복속도에 대한 평가

■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전세계, 신흥국의 보험업과 은행업의 자본수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회복속도를 평가해보고자 함.

○ ROE로 측정한 자본수익성은 은행 및 보험사의 자기자본 활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주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투자 판단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이 수익원이고, 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장부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PBR을 기업가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PBR은 보험상품의 장기계약 및 수익의 이원적 구조(보험영업수익 및 투자수익)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은행업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음.

○ 업권별 ROE-PBR 평면분석으로 투자자의 가치평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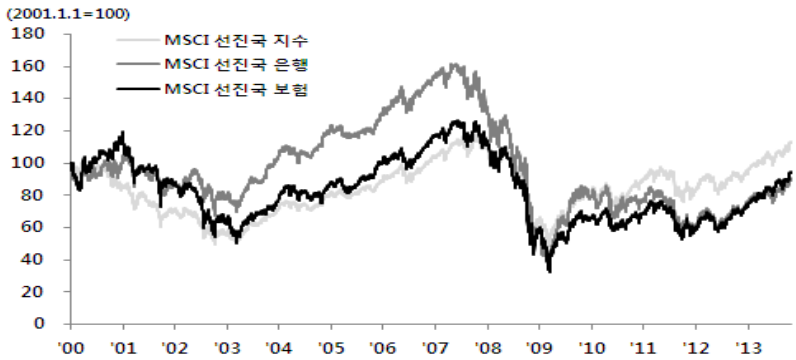
8) ROE-PBR 조합 분석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수익성(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비교하여 주가상승 여부를 전망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수익성이 높고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은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맞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가. 선진국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MSCI[9]은행업 지수는 보험업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보험업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 2008~2009년 MSCI 은행업 지수는 보험업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도 2000년 초반 대비 수익률은 보험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선진국 은행업 및 보험업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세계 은행업과 보험업의 PBR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선진국 은행업의 최근 ROE는 2000년 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PBR도 절반에 그쳐 업권의 가치평가와 성장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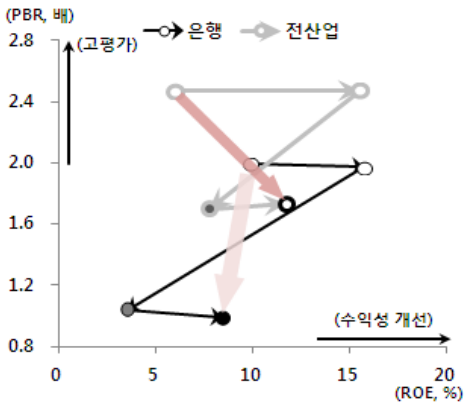
- 2001~2003년과 2010~2012년 평균 ROE는 9.9%, 8.5%로 소폭 둔화되었고, PBR은 같은 기간 2.0배에서 1.1배로 하락하였음.

○ 보험업의 경우, 수익성은 2000년 초반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PBR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9) Morgan Stanley Capital Index의 약자로 글로벌 상장기업의 유통주식기준 시가총액 가중평균 주가지수((Free Float Adjusted Market Capitalization Weighted Index)임.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함. 전세계 지수(MSCI World Index)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24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고 본고에서는 전세계 지수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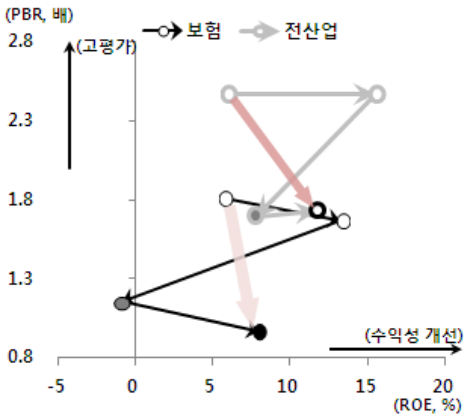
- 2001~2003년과 2010~2012년 평균 ROE는 각각 5.7%, 8.0%로 2.3%p 상승하였으나 PBR은 같은 기간 1.8배에서 1.0배로 하락하였음.

〈그림 4〉 선진국 은행업의 ROE-PBR matrix



주: 화살표의 시작은 2001~2003년, 2004~2007년, 2008~2009년, 화살표의 끝점은 2010~2012년 평균 ROE와 PBR를 나타내고, 회색점은 금융위기기간을 나타냄.
자료: Bloomberg.

〈그림 5〉 선진국 보험업의 ROE-PBR matrix



자료: Bloomberg.

■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ROE와 PBR을 2001~2012년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보면, PBR은 두 업권 모두 기간 평균수준을 하회하지만 ROE의 경우, 보험업이 기간 평균을 소폭 상회함.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의 ROE 8.5%는 2001~2012년 평균 ROE 10.4%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보험업의 ROE 8.0%는 평균수준인 7.7%를 웃돌고 있어 보험업 수익성의 추세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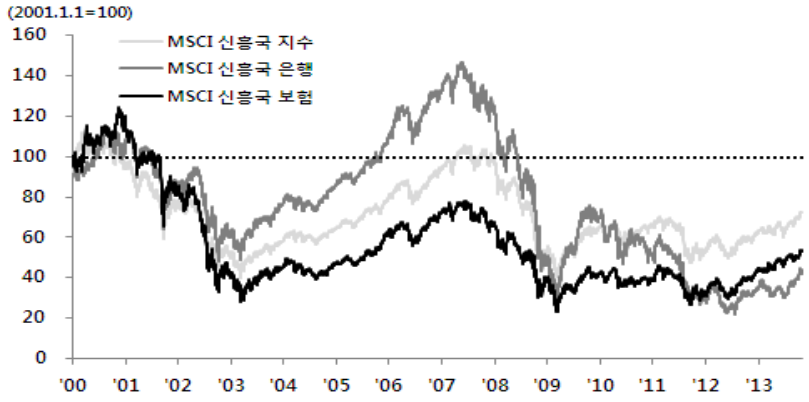
■ 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은행업과 보험업 모두 전산업 ROE와 PBR을 하회하고 있으며 전산업에 비해 수익성 개선폭은 더 큰 반면, PBR 하락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2012년 전산업 ROE와 PBR은 소폭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 ROE는 개선되었으나 PBR은 하락하였음.

나. 신흥국

■ 신흥국[10]의 경우도 선진국의 경우와 유사하며, 보험업 주가지수의 2000년 대비 수익률은 전업종 지수보다 낮은 반면, 은행업보다는 높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6〉 신흥국 은행업 및 보험업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크게 악화되었음.

○ 신흥국 은행업의 2010~2012년 평균 ROE는 3.7%로 2000년 초반의 9.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PBR도 1.6배에서 0.6배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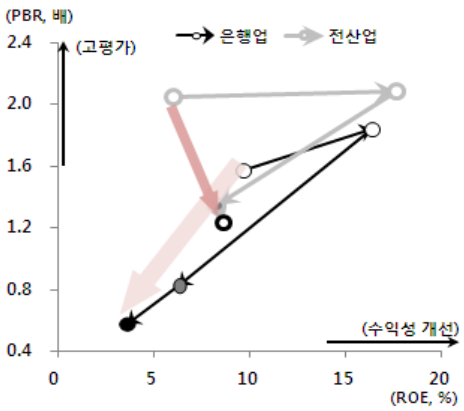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은행업의 수익성 개선과 반대 현상을 보임.

· 선진국 은행업의 ROE는 2008~2009년 평균 3.6%를 기록하였으나 2010~2012년 평균 8.5%로 상승한 반면 신흥국 은행업의 ROE는 같은 기간 6.4%에서 3.7%로 하락하였음.

10) MSCI Emerging Market Index를 사용하였음. 이 지수에는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21개 신흥국가가 포함됨. 신흥국지수에 포함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105개 회사이고 그 중 보험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고 은행 및 금융그룹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외환은행, 기업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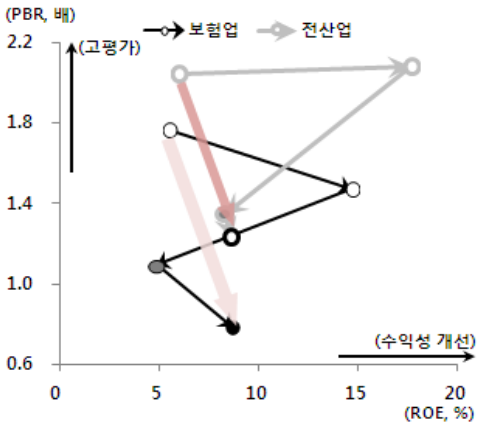
○ 보험업의 경우, 선진국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2010~2012년 ROE는 8.7%로 2001~2003년 5.5%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PBR은 1.8배에서 0.8배로 크게 둔화되었음.

〈그림 7〉 신흥국 은행업의 ROE-PBR matrix



자료: Bloomberg.

〈그림 8〉 신흥국 보험업의 ROE-PBR matrix



자료: Bloomberg.

■ 신흥국 은행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ROE와 PBR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 보험업의 경우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은행업에서 더 큰 것으로 보임.

○ 신흥국 은행업의 ROE, PBR이 모두 2003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하락하고 있음.

■ 신흥국 보험업은 전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PBR 감소 크기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 ROE와 PBR 감소크기보다 은행업의 ROE, PBR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보험업의 경우 수익성은 전산업에 비해 개선되었고 PBR 감소 크기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다. 우리나라

■ 국내 은행업과 보험업의 주가지수 수익률은 전업종 지수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11]

○ MKF2000 은행업지수는 2001년 1월초에 비해 다섯 배 증가하였고 보험업지수는 6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각 업종의 시가총액이 다섯 배, 그리고 여섯 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말에 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0% 증가하였고 보험업의 시가총액은 4.0% 증가하였으나 은행업의 시가총액은 24% 감소하였음.[12]
- 은행업 시가총액이 감소한 원인은 저축은행의 상장폐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인수합병 등인 것으로 보임.

○ 2005년 이후 보험업 지수가 상승한 원인은 저축성보험의 증가와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2009년 이후에는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의 상장으로 보험업의 시가총액이 성장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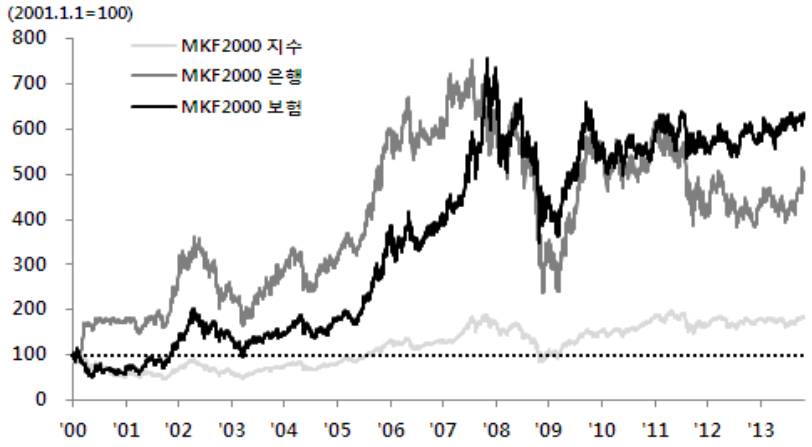
- 시가총액 비중의 경우 은행업은 2000년 초 30% 수준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보험업의 경우 2000년 초 1% 수준에서 4% 내외 수준임.
- 또한 보험업과 은행업의 주가지수 수익률 차이는 전세계적으로 2013년 10월 평균 9.6%p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40.4%p로 나타났음.

---

11) 본고에서는 매일경제가 발표하는 MKF2000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MSCI가 발표하는 Korea Index와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보험업종 지수가 2010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MKF지수는 기준 시점(2000년 1월 4일도)의 시가총액을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이며 시가총액 산출 시 유통주식수(자사주 제외)를 적용하여 계산함. 보험업의 경우 상장주식수는 2000년 초 269,822,004주에서 현재 2,000,127,596주로 641% 증가하였고 가격지수는 768포인트에서 6,274.3포인트로 716% 증가하였음. 반면에 은행업의 경우 상장주식수는 2000년 초 3,866,461,548주에서 24% 감소한 2,938,124,676주이며 가격지수는 1807.93포인트에서 4,768.01포인트로 163.7% 증가하였음. 전업종 지수는 유통주식수가 118.4% 증가하였고 가격은 193.8% 증가하였음.

12) 2013년 11월 15일 기준 은행업 시가총액은 70조 9,000억 원, 보험업 시가총액은 51조 9,000억 원, 그리고 전업종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 수준임.

〈그림 9〉 전세계 은행업 및 보험업 MKF2000 주가지수 추이



자료: FnGuide.

■ 우리나라 은행업의 ROE-PBR 추이는 선진국 은행업과 비슷한 반면, 보험업의 경우 2001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수익성과 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5〉 우리나라 은행업·보험업·전산업의 PBR, ROE 추이

(단위: 배, %)

구분		2001~2003	2004~2007	2008~2009	2010~2012	평균
은행업	PBR	1.1	1.4	0.8	0.7	1.0
	ROE	11.5	17.8	8.4	10.2	12.0
보험업	PBR	1.1	1.7	2.2	1.4	1.6
	ROE	6.7	9.8	15.7	11.4	10.9
전산업[1)]	PBR	1.0	1.4	1.1	1.2	1.2
	ROE	5.8	12.6	6.4	10.0	8.7

주: 1) MKF2000 지수에 편입된 모든 업종임.
자료: Fnguide.

○ 신흥국의 경우와 다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의 수익성이 소폭 개선됨.

- 2001~2003년과 2010~2012년 평균 ROE는 각각 11.5%, 10.2%로 1.3%p 하락하였으며 PBR은 같은 기간 1.1배에서 0.7배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수익성은 전산업 수익성 개선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선 크기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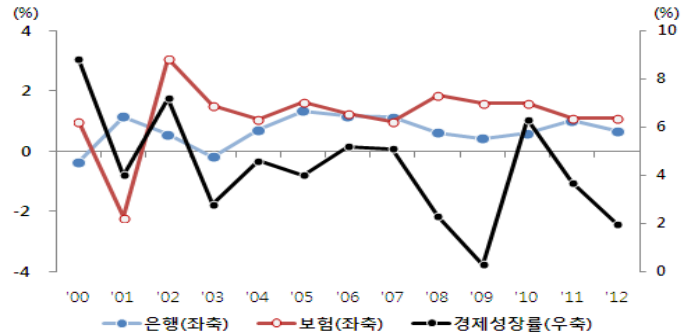
○ 반면 보험업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ROE-PBR 모두 증가하여 전산업에 비해 높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ROE와 PBR이 모두 하락하였으나 2000년 초에 비하면 ROE와 PBR이 모두 상승하였음.

- 2001~2003년과 2010~2012년 평균 ROE는 각각 6.7%, 11.4%로 4.7%p 상승하였으며 PBR도 같은 기간 1.1배에서 1.4배로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의 PBR은 2010~2012년 평균 1.4배로 2001~2003년 평균 PBR 2.2배에서 크게 둔화되었으나 국내 은행업 PBR 0.9배, 선진국 보험업 PBR 1.0배, 신흥국 보험업 PBR 0.8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금 및 장기보험의 성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림 10〉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과 은행업 및 보험업 ROA[1] 추이



주: 1) MKF2000 은행, 보험 섹터의 ROA임.
자료: Fnguide, 한국은행.

○ 그러나 2010년 회계연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이 둔화되고 있고 손해보험산업도 유사하게 둔화되고 있어 ROE와 PBR 둔화추세는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저금리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자동차보험 경영수지 악화, 부채적정성평가(LAT) 도입 등이 보험업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의 수익성 회복속도가 은행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09~2012년 전세계 상업은행과 보험업의 평균 ROA, ROE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8% 수준이나 2008년 보험업의 수익성 감소 크기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의 수익성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이후 보험업의 수익성은 은행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가 선진국 보험업에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나 변액연금, 금융보증 등 일부 사업에 국한되었고 운용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위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가지수를 비교할 경우 2002년 닷컴버블 붕괴 이전에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주가수준이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닷컴버블 붕괴 이후 2008년 이전까지는 은행업의 주가수준이 보험업보다 더 높았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은행업과 보험업 모두 전산업 주가지수를 하회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보험업의 주가지수가 은행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환되었고 상승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자본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은행업의 수익성 둔화와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보험업 주가지수가 모두 빠르게 반등하였고, 보험업 주가의 상승속도는 은행업의 상승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남.

■ PBR과 ROE로 은행업과 보험업의 회복속도를 평가한 결과, 신흥국의 보험업 수익성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의 수익성과 투자자들의 평가가 은행업이나 전산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신흥국의 경우 은행업의 수익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OE가 5%에서 8.7%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신흥국 보험업의 ROE는 신흥국 전산업의 ROE와 동일한 8.7%를 유지하고 있으며 PBR도 전산업 PBR 1.2배에 비해 소폭 낮은 0.8배로 은행업의 0.6배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2012년 평균 보험업 PBR은 1.4배, ROE는 11.4% 수준으로 은행업과 전산업에 비해 수익성과 투자심리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보험업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이 은행업보다 적어 은행업에 비해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성장동력 소진,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른 수익성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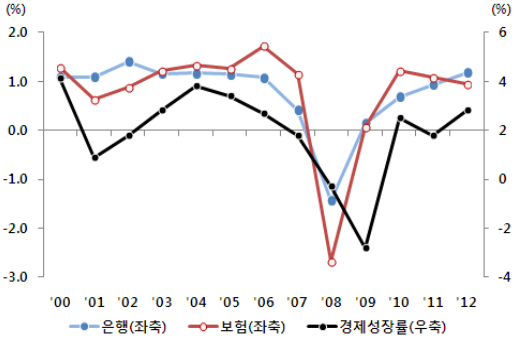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장기보험 등이 보험업의 성장세를 주도하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줄여온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은행업과 보험업의 자산수익성은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험업의 자산수익성이 은행업의 자산수익성을 후행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이후 보험업의 자산수익성(ROA)이 은행업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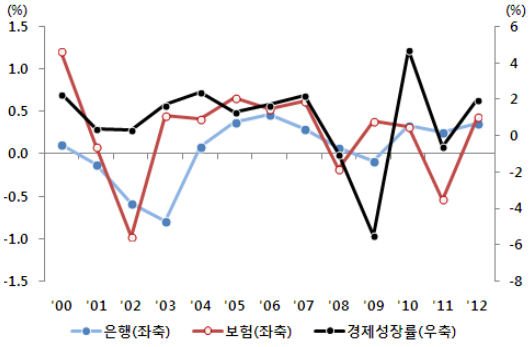
〈그림 11〉 실질경제성장률과 은행업 및 보험업 ROA[1] 추이

〈그림 11-1〉 미국



주: 1) S&P500 은행, 보험 섹터의 ROA임.
자료: Bloomberg.

〈그림 11-2〉 일본



주: 1) TOPIX 은행, 보험 섹터의 ROA임.
자료: Bloomberg.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될 경우 저성장·저금리로 보험영업수익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투자영업수익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McKinsey(2012. 10), “The Tripple Transformation”, 2nd McKinsey Annual Review on the Banking Industry.

OECD,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s 201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3. 6), 「Impacts and Regulatory Response to 2007-2008 Financial Crisis」.

Ⅱ. 글로벌 이슈와 뉴스

◘ 미국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 사례와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는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2010년 AIG의 자회사인 ALICO를 인수한 이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칠레, 베트남 등에 진출하였음. 그 결과 수입보험료 기준 해외사업 비중은 2007년 13.5%에서 2012년 35.1%로 증가하였음. 메트라이프의 사례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국내 사업기반 강화, 해외사업 관련 위험분산을 위한 자본확충, 상품·지역 다각화 그리고 신속한 현지화가 해외진출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함.

가. 금융위기 이후 메트라이프(Metlife)의 전략변화

■ 미국 메트라이프는 자산기준 세계 3위의 보험회사로서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나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음.

○ 2013년 3월 Forbes Global 2000은 메트라이프를 자산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보험그룹(Diversified Insurance Company)으로 선정하였음.

- 메트라이프는 2013년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G-SIFI)에 선정되었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지역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미국 86.5%로 경쟁사들에 비해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음.

- 2007년 알리안츠(Allianz)의 독일사업 비중은 순이익(Revenue)기준으로 36.6%, 악사(AXA)의 경우 프랑스 생명보험 사업 비중은 순이익(Revenue)기준 25.1%, AIG의 경

우에도 수입보험료 기준 미국 비중이 11.7%에 불과하였음.[1)]

○ 유럽 보험회사들의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미국 진출이 활발했고, AIG를 제외한 미국보험회사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 1〉 글로벌 복합 생명보험그룹 규모 순위(2013년 3월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구분	국가	총자산	시가총액	매출
AXA	프랑스	1,005.4	45.3	147.5
Allianz	독일	915.8	66.4	140.3
Metlife	미국	836.8	44.0	68.2
Generali	이탈리아	582.4	26.0	116.7
AIG	미국	548.6	57.5	65.7

자료: Forbes Global 2000.

■ 메트라이프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 AIG의 글로벌 보험자회사인 ALICO(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인수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메트라이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도움을 받지 않고 23억 달러를 자본시장에서 조달하여 자본을 확충하였음.[2)]

- 2008년 메트라이프는 보수적인 투자포트폴리오 유지와 헤징을 통해 금융시장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수입보험료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영성과를 나타냈음.[3)]

○ 반면 AIG의 경우 CDS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TARP자금을 받게 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글로벌 자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으며, 메트라이프가 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함.

1) 각 사 2007년 Annual Report.

2) New York Times(2009.4.14), "Metlife Opts to Forgo TARP Cash".

3) 보험연구원(2009.4.20),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사점", 주간이슈.

■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은 미국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메트라이프가 강세를 보여왔던 변액연금 등 투자형 상품의 리스크 확대로 영업지역, 상품전략,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했기 때문임.

○ 메트라이프는 미국 영업에서도 변액연금 비중을 축소하고 건강/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함.

〈표 2〉 세계 생명보험시장 성장률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북미	5.9	-3.4	-11.8	-0.6	3.4	2.0
남미	12.3	7.0	7.4	12.2	8.5	16.8
서유럽	9.4	-11.6	4.0	2.8	-9.7	-3.1
동유럽	17.2	18.7	-19.2	5.7	-1.0	5.1
아시아	-2.7	8.2	4.2	6.3	-2.0	6.5
아프리카	-0.9	5.5	1.7	-2.4	2.9	13.8
오세아니아	7.9	17.6	-23.7	2.7	2.2	-4.9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8, 2010, 2012.

○ 본고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나. ALICO인수를 통한 해외진출 본격화

■ AIG는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0년 3월 메트라이프가 AIG의 글로벌 자회사 ALICO를 15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 AIG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으며, 구조조정 방안으로 두 개의 자회사 AIA와 ALICO를 각각 영국 Prudential과 메트라이프에 매각함.

- AIA와 ALICO매각으로 구제금융 중 315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었음.

○ 1921년 설립된 ALICO는 전세계 50여개 국에서 2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보험회사이며, 설계사, 중개사 등을 포함해 60,000개 이상의 고객접점을 보유하고 있음.

■ 메트라이프의 ALICO인수에 대해 언론과 신용평가사 등은 메트라이프가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의 계기라고 평가함.

○ Wall Street Journal은 메트라이프가 AIG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자회사인 ALICO를 인수함으로써 유럽의 알리안츠, 악사 등과 같은 글로벌 보험회사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Breakingviews.com은 메트라이프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이 15% 수준에 불과했으나 성숙시장에 진입한 미국과 달리 수익성이 높고 성장세가 빠른 신흥국에 대한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은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함.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메트라이프의 ALICO인수가 글로벌화를 통한 기회요인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미국 내 사업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있다고 지적함.

■ 메트라이프의 CEO, Robert Henrikson은 ALICO인수가 메트라이프의 글로벌화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메트라이프의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 지역 다각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함.

〈표 3〉 메트라이프 해외 수입보험료 및 영업이익 추이[4)]

(단위: 백만 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보험료	3,096	3,470	3,187	4,124	12,751	13,292
비중	13.5	13.4	12.0	15.2	35.2	35.1
영업이익	568	479	463	780	2,212	1,891
비중	12.1	17.0	18.6	19.7	40.4	32.6

자료: Annual Report 각 연도.

4) 해외영업은 일본과 같은 성숙시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영업과는 상이함.

○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AIA와 달리 ALICO는 일본의 비중이 높지만 동유럽, 칠레, 러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영업하는 것이 특징이며, 메트라이프와 ALICO는 상품구성,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평가됨.

○ 메트라이프는 ALICO인수로 일본에서 대형 보험회사로 도약하고 동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표 4〉 메트라이프의 2012년 해외 수입보험료 및 영업이익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EMEA
수입보험료	2,578	8,344	2,370
비중	6.8	22.0	6.3
영업이익	583	1,037	271
비중	10.0	17.9	4.7

자료: Annual Report 각 연도.

다. 조직개편 이후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 2011년 11월 메트라이프는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미국과 해외(international)로 구분된 영업 부문을 아메리카(라틴 아메리카 포함),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아시아 등 3개 부문으로 재편함.

○ 새로운 사업부문은 모두 성숙시장과 신흥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메트라이프가 신흥시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균형있는 해외진출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12년 5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사업을 가속화함.

○ 2012년 1월 메트라이프는 영국 보험회사 아비바(Aviva)로부터 체코(Aviva Czech Life), 헝가리(Aviva Hungary Life), 루마니아(Aviva Romania Life and Pensions) 자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함.

○ 2012년 5월에는 미국 사업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여 2016년까지 신흥국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을 20%까지 확대, 자본이익률을 2011년 10.3%에서 12%~14%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미국 사업의 경우 금융시장에 민감한 변액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축소하고 상해/건강보험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을 강화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기로 함.

■ 칠레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함.

○ 2013년 2월 메트라이프는 남아메리카 칠레의 최대 연금사업자인 프로비다(Provida)*의 지분 64.3%를 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함.

- 메트라이프는 칠레의 생명·연금보험 시장에 이미 진출하였고 연금사업자를 인수하여 시너지를 창출, 칠레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프로비다는 453억 달러의 자산과 1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칠레 최대의 연금사업자로 메트라이프는 이번 인수로 신흥국에서의 영업이익을 3%p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칠레 연금사업자 인수는 신흥국 비중 확대와 더불어 금융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9월 베트남의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BIDV)*,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Insurance Corporation(BIC)과 함께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에 합의함.

- 메트라이프는 합작생명보험회사에 4,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60%의 지분을 확보하고 2014년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

* BIDV는 1957년 설립된 은행으로 전국적으로 5백 만 고객을 확보하고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3년 연속 베트남에서 탑 브랜드 10선에 선정되는 등 베트남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은행임.

- 메트라이프는 베트남 진출을 통해 고성장하는 동남아 보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며, 대형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한 안정적인 채널 영업을 확보함.

라. 시사점

■ 메트라이프의 해외진출은 지역 및 상품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현지화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는 진출방식을 택하는 특징이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메트라이프는 모기지 관련 익스포져 축소, 투자손실에 대비한 헤지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한 양호한 경영성과를 토대로 ALICO를 인수, 해외진출 기회에 대비할 수 있었음.

- 메트라이프는 2009년 파생상품 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였으며, 2009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음.

○ 메트라이프의 해외시장 진출은 신흥국 또는 아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숙시장과 신흥시장의 조화, 지역 및 상품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고 있음.

○ 최근 해외진출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보험회사의 M&A, 현지 은행과의 합작기업 설립 등 현지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보험상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빠른 현지화 전략을 택함.

■ 국내 보험회사들도 수익원의 지역별, 상품별 다각화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유럽계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해외보험회사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유럽계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구조조정은 바젤 III, 솔벤시 II 등 글로벌 금융감독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결 RBC 도입으로 해외진출 시 RBC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6]

○ 따라서 해외진출 전략 또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 진출 지역의 다양화와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통합적인 리스크 분산을 추구해야 할 것임.

○ 현지에 대한 정보력과 영업력을 보유한 파트너와의 합작 또는 협력을 통한 빠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 보험연구원(2013.6.17),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포커스.

6) 한국금융신문(2013.10.24), 「IFRS〈국제회계기준〉…보험사 해외진출 걸림돌 '왜'」.

〈참 고 문 헌〉

보험연구원(2009. 4. 20),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사점」, 주간이슈.

_____(2013. 6. 17),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포커스.

한국금융신문(2013. 10. 24), 「IFRS〈국제회계기준〉…보험사 해외진출 걸림돌 '왜'」.

AIG, Annual Reprt 2007.

Allianz, Annual Reprt 2007.

AXA, Annual Reprt 2007.

Metlife, Annual Report 2007~1012.

New York Times(2009. 4. 14), "Metlife Opts to Forgo TARP Cash".

Reuters(2010. 3. 8), "Metlife Seals Alico Deal After Two-year Quest".

Swiss Re, World Insurance 2008, 2010, 2012.

The Wall Street Journal(2010. 3. 8), "Alico Deal Will Transform Metlife".

Forbes Global 2000(http://www.forbes.com/global2000/).

Metlife(https://www.metlife.com/about/press-room/index.html).

◘ 이슬람 금융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이정환 선임연구원

최근 해외진출을 본격화하는 일본 기업들이 BRICs시장 다음으로 주목하는 시장이 동남아시아,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임.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권이며 풍부한 천연자원, 정비된 사회적 인프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큼. 2000년 이후 유럽의 복합금융그룹들도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이슬람 지역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슬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금융 및 보험회사들에게 이슬람 금융은 기회요인일 수도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이슬람 금융[1] 및 보험 시장 현황

■ 2009년 말 현재 세계 이슬람 금융자산은 1조 410억 달러이며 2006~2009년 동안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슬람채권인 수쿠크 발행 규모는 2002년 10억 달러, 2007년 340억 달러까지 급증한 후, 2008년에는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500억 달러로 반등함.

■ 이슬람 보험시장(타카풀) 규모는 2011년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이며 2012년에는 1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2]

○ 이슬람 보험시장은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29%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던 2010년에도 19%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슬람 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2010년 68%)을 차지하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3] 지역의 보험시장은 2005~2009년 연평균 41%, 2010년 16% 성장함.

1) 이슬람 금융 및 이슬람 보험 개요는 〈참고〉를 참조하기 바람.

2) Ernst & Young(2012.4).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은 2005~2009년 연평균 28%, 2010년 32% 성장하였고, 그 밖에 방글라데시, 수단 등은 2005~2009년 연평균 31%, 2010년 14% 성장함.

○ 이슬람 보험은 이슬람율법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확대되기 시작함.

- 이슬람교에서는 「神만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손실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마호메트의 메시지를 재해석하면서 보험이 받아들여짐.

〈표 1〉 글로벌 이슬람 보험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사우디	GCC[1]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연안	인도 등[2]	전체
2009	3,896	990	1,480	377	39	193	6,975
2010(E)	4,370	1,313	1,951	412	79	202	8,329
2011(F)	4,902	1,741	2,572	452	160	211	10,039
2012(F)	5,498	2,310	3,390	544	197	469	12,407

주: 1) 사우디아라비아 제외 2)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자료: Ernst & Young(2012.4).

■ 상품별로는 패밀리 및 메디컬 타카풀과 손해보험 상품인 해상 및 항공, 재물 및 사고, 자동차 등의 비중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4]

〈표 2〉 이슬람 보험 판매 비중

(단위: %)

구분	이란	GCC[1]	동남아시아	인도[2]	전체 이슬람 보험시장
패밀리 및 메디컬	27	59	69	76	48
해상 및 항공	3	5	2	4	4
재물 및 사고	18	16	13	13	16
자동차	52	20	16	7	32

주: 1) 지중해 연안 포함. 2)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자료: Ernst & Young(2012.4).

3)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회원국이며 회원국 간 정치적 협력, 경제 통합, 상호 방위협력, 경제 발전 상호협력, 문화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함.

4) Family Takaful은 생명보험, General Takaful은 손해보험, Medical Takaful은 질병 및 상해에 해당함.

○ 패밀리 및 메디컬 타카풀은 GCC,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지역에서 비중이 크며 자동차 타카풀은 이란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슬람 금융시장의 성장 요인은 이슬람권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인식변화,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슬람권 국부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非이슬람금융의 신용 저하 등임.[5]

○ 미국 비영리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6] 무슬림은 약 16억 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7]

○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율법에 부합하는 이슬람 보험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슬람 금융이 성장함.

○ 고유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이에 따른 위험 보장 수요 및 가입 여력이 증가함.

○ 종교적 해석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규제 변화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

나. 글로벌 보험회사 진출 현황

■ AXA, HSBC, Aviva, 영국 Prudential 등 다수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이슬람 보험시장에 진출함.

■ 동경해상은 2000년 인도 합작법인 설립 이후 200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등의 보험시장에 진출함.[8]

○ 일본 손해보험시장이 1997년 크게 부진(-2.9% 성장)하였고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보험이 위축되면서 해외진출이 본격화되었음.

---

5) Milliman(2012).

6) NRI(2011.9)에서 재인용함.

7) 이슬람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30년 약 2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 이슬람 인구의 약 95%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전체의 60%인 9.7억 명을 차지함.

8) 동경해상(2011.7).

- 2000년부터 인도 이외에도 싱가포르, 브라질, 영국, 미국 등에 현지 보험회사 인수 방식으로 진출하였음.

○ 해외보험사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에서 2011년 41%로 증가함.

- 동경해상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적극적인 현지화와 사업다각화 및 지역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임.

〈표 3〉 해외 보험회사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현황

회사명	진출국가	진출방식	비고
동경해상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집트	JV 또는 단독출자	• '06년 말레이시아에서 외국회사로는 처음으로 이슬람 보험 면허 취득 • 생명보험 중심
HSBC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JV	• 투자연계형 등 생명보험 중심
Aviva	말레이시아	JV	• 말레이시아 2대 금융그룹과 JV • 손해보험 중심
Prudential UK	말레이시아	JV	• 저축성이 강한 생명보험 중심
AXA	사우디아라비아	단독출자	• '14년 수입보험료 3배 증대 목표
AIG	바레인 말레이시아	단독출자	-
Allianz	바레인 인도네시아	단독출자	• '09년 이후 바레인을 거점으로 시장 확대 추진
Legal & General	바레인 이집트	JV	-

자료: 삼성생명(2013).

○ 동경해상은 2004년 싱가포르에서 도쿄해상리타카풀회사, 2006년 말레이시아 최대 은행그룹인 Hong Leong Group과 합작사인 홍룡도쿄해상타카풀, 2010년에는 이집트에서 Nile Family/General Takaful 등을 설립하였고, 201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함.

다. 일본의 이슬람 금융시장 관련 제도 정비 및 법 개정

■ 일본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과 자금조달 및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일본계 은행의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일본금융청은 2008년 은행법 시행 규칙을 개정함.[9)]

- 이슬람 금융은 실물 자산의 거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진출 금융기관들은 실물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일본 은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음.

○ 일본금융청은 2011년 세제 개정을 통해 이슬람채권(이하 수쿠크) 투자 수익을 비과세함.

- 수쿠크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수쿠크를 발행한 특수목적기구(SPC)로부터 수익을 분배하면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일본 기업 발행 스쿠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수익이 아닌 출자수익으로 구분되어 15%의 소득세가 부과됨.

○ 일본 증권거래소는 Tokyo Aim 거래소가 설립한 「Tokyo Pro-Bond Market」에서 스쿠크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 정비 및 법 개정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슬람 자금 조달 및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함.

○ 미츠비시동경UFJ 은행은 2008년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 이슬람 금융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본 기업의 수쿠크 발행을 시작하였고, CIMB[10)]는 2010년 수쿠크 인수금액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함.

○ 2008년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리스와 대출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약 320억 엔을 수쿠크 발행에 의해 조달하였고, 2011년 6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인 스즈키 제조 및 판매자회사에게 이슬람 금융을 통해 4억 엔의 대출을 실시함.

---

9) 「제17조3항(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2의2 금전 대출이외의 거래」.

10) 前일본계 투자은행. 현재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 은행.

■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GCC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진출과 자금조달 및 운용전략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라. 이슬람 금융 도입과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의 장단점 및 시사점

■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과 비용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2007년 일반 대출금리가 5%인 상황에서 일본의 AEON Credit Service는 수쿠크 발행을 통해 4.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이슬람채권법이 무산되면서 이슬람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11]

■ 국내 보험회사의 이슬람 보험 진출은 경영위험 분산,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16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타카풀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기회요인일 수 있음.

■ 그러나 이슬람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상품을 대체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차별화, 언더라이팅과 pricing의 효율화,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와 같이 기존 보험과 경쟁하는 시장의 경우 기존 보험에 회의적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며,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타카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이 필요함.

○ 언더라이팅 및 pricing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슬람 재보험 비율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노하우 축적이 요구됨.[12]

○ 이슬람율법 해석 변화에 수반되는 시장 규제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13]

---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12).

12) NRI(2011.9).

13) Daiwa Institute of research(2007.11).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의 해석에 따라 시대별, 국가별 상이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 전통적 금융 중 하나인 해외보험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슬람 보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동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세계 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슬람 보험의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12),『이슬람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삼성생명(2013), 내부자료.

東京海上(2011. 7), “東京海上グループの海外展開とその課題について”.
Daiwa Institute of research(2007. 11), “イスラム金融と日本の対応”.
NRI(2011. 9), “パブリックマネジメントレビュ”.

Ernst & Young(2012. 4), “The World Takaful Report 2012”.
Milliman(2013), “Global Family Takaful Report 2013”.

참고

가. 이슬람 금융 개요

■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은 "이자 수수 및 투기적 거래 등[14]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Sharia)[15]을 준수하는 금융거래"를 의미함.

○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되는 샤리아위원회(Shariah Committee)[16]가 결정함.

■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일반 금융(conventional finance)에서 이자 수수 등이 수반되는 거래를 출자·리스 등 무이자방식으로 변형하여 거래함.

○ 운용형태별로는 지분참여형(Equity Structure)인 무샤라카(Musharakah), 무다라바(Mudarabah), 부채형(Debt Structure)인 무라바하(Murabaha), 이자라(Ijarah), 이스티스나(Istisna) 등으로 구분함.

■ 주요 이슬람금융상품으로는 은행형 상품, 수쿠크(Sukuk), 타카풀(Takaful) 및 펀드 등이 있음.

○ 은행형 상품은 일반예금 및 대출을 이슬람금융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 대신 자금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대출의 경우 출자·리스 등으로 자금을 공여하고 임대료 또는 배당금 등을 수취함.

○ 채권형 상품인 수쿠크는 수익의 배당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발행자는 이슬람금융을 제공하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등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이자 대신 동 SPV가 창출한 수익을 배당함.

- 수쿠크 투자자는 SPV가 영업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실물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함.

○ 보험형 상품인 타카풀은 계약자들간 상호부조방식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운용수익 배분 등 관리·투자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샤리아는 소액의 보험료 납입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을 일종의 투기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반보험은 금지함.

○ 펀드는 투자자가 자금을 전액 공급하고 펀드매니저는 경영자가 되는 Silent partnership 계약방식으로 운영됨.

- 이슬람펀드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되고, 수쿠크 및 샤리아 준수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함.

■ 이슬람 금융상품은 짧은 역사[17], 샤리아 준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상품만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을 수행하기가 곤란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금융 외에도 일반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이원 시스템을 운영함.

- 대부분의 일반은행 및 글로벌은행들은 무슬림 고객을 위한 별도창구(Islamic window)를 통해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나. 이슬람 보험 개요

■ 일반 보험은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용하기 곤란함.

○ 일반 보험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급 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보험회사는 이자를 수반하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슬람에서는 금기 시되는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음.

■ 이슬람 사회는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 고유의 상호부조와 각출문화에 기초하는 이슬람 보험을 만들어 냄.

■ 이슬람 보험은 계약자 펀드와 운영사 또는 주주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계약자와 운영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보통은 이윤을 공유하는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14) 이자 수수, 불명확한 자금거래, 투기, 술·담배·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정기적 확정수입 수취 등은 금지됨.

15) 코란 및 수나(무함마드의 언행) 등을 바탕으로 성립됨.

16) 이슬람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중앙은행 등에 동 위원회를 설치함.

17) 현대적 의미의 이슬람금융은 1975년 Islamic Development Bank 및 Dubai Islamic Bank(최초의 이슬람 상업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상품에 대

○ 이슬람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대상을 선택, 즉 이슬람채권(sukuk)에 대한 투자는 허용함.

○ 모든 이슬람 보험은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항상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 받아야 함.

■ 이슬람 보험은 전통적 보험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로 대별되는데, 계약자와 타카풀운영사간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모델이 존재함.

○ 계약관계에는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며, 보험영업을 통한 잉여나 투자활동에 의한 이익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위험 발생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지며, 운영 초기 자본은 누가 제공할 것인가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임.

■ 타카풀 운영모델은 우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델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델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와칼라(Wakalah), 무다라바(Mudharabah) 및 양자를 결합하는 혼합방식으로 대별됨.

○ 와칼라의 기본개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를 대표하여 활동할 것을 위임하고, 미리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수수료계약방식임.

○ 무다라바의 개념은 한쪽은 업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자본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로, 양자는 공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미리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이익배분계약방식임.

○ 타카풀의 기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와칼라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무다라바방식을 적용하는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은 대부분 영업부분은 수수료계약방식으로, 투자운영에 대해서는 이익배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의 와크프 모델은 운영사와 계약자 간에 공유하는 이익은 없음.

○ 타바루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운영사는 무이자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자는 갹출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며 운영사나 계약자는 잉여금이나 이익을 수령하지 못함.

○ 이러한 비영리 모델은 사회 혹은 정부 소유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 잉여금 펀드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통적인 상호보험회사와 가장 유사함.

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본격화됨.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시장 중심 M&A 확대 현황

이아름 연구원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일본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일본의 3대 생명보험사에 속하는 일본생명은 Reliance 생명보험회사, Allianz Finance II BV,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td 등 3개사, 다이이치생명은 TAL, 제너스 캐피털 그룹 등 2개사, 메이지야스다생명은 Talanx AG, Avrist Assurance PT, TU Europa S,A, 등 3개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일본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지분을 인수한 해외 보험회사가 8개에 달하였음.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 M&A는 보험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업, 자산운용업 등 다양한 금융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음.

가. 일본 보험사 M&A 현황 및 배경

■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2012년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반면 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일본 보험업계의 아시아 신흥국[18] 보험회사 인수가 증가하였음.

- 2012년 2/4분기 일본의 아시아 신흥국 M&A 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고 2013년 3/4분기에는 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신흥국 M&A 금액이 증가세를 보임.
- 특히 2012년 들어 일본 보험회사의 M&A 지역별 비중이 아시아 신흥국에서 확대되고 있음.

18) 아시아 신흥국은 우리나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마카오, 몰디브, 마셜제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한 28개국을 일컬음.

〈표 1〉 지역별 일본 보험사 M&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건)

구분		2011		2012				2013		
		3/4	4/4	1/4	2/4	3/4	4/4	1/4	2/4	3/4
아시아 (신흥국)	거래액	0	0	288	532	2	340	0	363	714
	구성비	0	0	80.7	100.0	0.8	86.0	0	59.2	80.7
	거래건수	0	0	1	3	1	1	0	2	1
아시아 (선진국)	거래액	9	392	69	0	194	55	218	41	161
	구성비	1.0	13.3	19.3	0	99.2	14.0	68.9	6.7	18.2
	거래건수	2	9	6	4	6	4	10	5	5
북미	거래액	181	2,555	0	0	0	0	0	0	0
	구성비	19.8	86.7	0	0	0	0	0	0	0
	거래건수	2	2	0	0	1	0	1	1	0
서유럽	거래액	724	0	0	0	0	0	0	0	0
	구성비	79.2	0	0	0	0	0	0	0	0
	거래건수	3	0	0	0	0	1	0	0	0
중동 및 아프리카	거래액	0	0	0	0	0	0	0	209	0
	구성비	0	0	0	0	0	0	0	34.1	0
	거래건수	0	0	0	0	0	0	0	1	0
동유럽	거래액	0	0	0	0	0	0	0	0	0
	구성비	0	0	0	0	0	0	0	0	0
	거래건수	0	1	0	0	0	0	0	0	0
중남미 및 캐리비언	거래액	0	0	0	0	0	0	98	0	0
	구성비	0	0	0	0	0	0	31.1	0	0
	거래건수	0	0	0	0	0	0	1	0	0
세계	거래액	914	2,947	357	532	196	396	317	614	885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거래건수	7	12	7	7	8	6	12	9	7

주: 아시아 신흥국은 28개국(우리나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마카오, 몰디브, 마셜제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선진국은 5개국(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북미는 3개국(버뮤다, 캐나다, 미국)을 가리킴.

자료: Bloomberg.

○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지역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와 더불어 보험산업 M&A도 활발해지고 있음.

- 2012년 기준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2대 신흥국의 GDP 평

균은 각각 5.5%와 6.5%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2	2018	2014~2018	2000~2007
아세안 6개국	브루나이	1.0	2.4	2.3	0
	인도네시아	6.2	6.1	6.0	5.1
	말레이시아	5.6	5.3	5.1	5.5
	필리핀	6.8	5.9	5.8	4.9
	싱가포르	1.3	3.1	3.3	6.4
	태국	6.5	5.3	4.9	5.1
CLMV 국가	캄보디아	7.2	7.1	6.8	9.6
	라오스	7.9	7.5	7.7	6.8
	미얀마	N/A	7.0	6.8	0
	베트남	5.2	6.0	5.4	7.6
아세안 10개국 평균		5.5[2]	5.6	5.4	5.5[3]
아시아 2대 신흥국	중국	7.8	7.5	7.7	10.5
	인도	3.7	6.1	5.9	7.1
아시아 2대 신흥국 평균		6.5	6.9	6.9	8.6

주: 1) 2013년 9월 6일 기준.
2) Brunei Darussalam과 미얀마 제외.
3) 미얀마 제외.
자료: OECD Development Centre, MPF-2014.

- 2012년도를 제외하고 2008년 이후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아시아 지역 투자는 감소 추세인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증가 추세임.

〈표 3〉 일본의 아시아 지역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Q
제조업	16,676	10,137	12,505	17,159	17,663	2,936
	(70.1)	(52.2)	(65.7)	(55.0)	(66.0)	(44.0)
비제조업	7,114	9,290	6,530	14,049	9,115	3,740
	(29.9)	(47.8)	(34.3)	(45.0)	(34.0)	(56.0)
합계	23,790	19,427	19,035	31,209	26,778	6,677

주: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일본은행.

○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 보험회사들이 신흥국 M&A를 확대함.[19)]

■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세계 중산층 인구는 2009년 18.5억 명에서 2020년 32.5억 명, 2030년 48.8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중산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20)]

○ 아시아 중산층은 2009년 5.3억 명에서 2030년 32.3억 명으로 6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세계 전체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5%에서 2020년 53.6%, 2030년 66.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아시아 신흥국의 중산층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명, %)

지역	2009		2020		2030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북미	338	18	333	10	322	7
유럽	664	36	703	22	680	14
중남미	181	10	251	8	313	6
아시아	525 [28.5]	28	1,740 [53.6]	54	3,228 [66.1]	6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	2	57	2	107	2
중동과 북아프리카	105	6	165	5	234	5
세계 중산층	1,845 (27.1)	100	3,249 (42.4)	100	4,884 (58.6)	100
세계 인구	6,801		7,651		8,335	

주: 1) [ ]안은 세계 중산층 인구 대비 아시아 중산층 인구 비중이며, ( )안은 세계 인구 대비 세계 중산층 인구 비중임.
2) 2005년 PPP기준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계함.

자료: OECD Development Centre, Global Insight.

19) 닛케이신문.

20) 이부형(2013), 「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나. 일본생명보험회사의 M&A 사례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3대 생명보험사인 일본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21]은 8개 해외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지속적으로 해외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생명은 Reliance 생명보험회사, Allianz Finance II BV,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td 등 3개사, 다이이치생명은 TAL[22], 제너스 캐피털 그룹 등 2개사, 메이지야스다생명은 Talanx AG[23], Avrist Assurance PT/Jakarta, Towarzystwo Ubezpieczeniowe Europa S,A[24], 등 3개사의 지분을 인수하였음.

〈표 5〉 3대 일본 생명보험회사

(단위: 백만 달러)

일본 순위	글로벌 순위	기업명	총자산	순이익
1	86	일본생명	586,868	86,720
2	142	다이이치생명	379,728	63,631
3	164	메이지야스다생명	351,922	56,944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13.

(1) 일본생명

■ 2008년 이후 일본생명은 해외 보험회사와 더불어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 지분매입·인수를 통해 수익원 다각화를 추진함.

21) Fortune, Global 500 2013 기준.

22) 1869년에 설립된 호주의 4대 생명보험회사로서 2013년 3월 기준 723억 엔의 총자산을 보유함.

23)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독일의 3대 보험회사이며 유럽의 8대 보험회사이고 2012년 12월 기준 약 8억 유로의 총자산을 보유함.

24) 폴란드 보험회사로서 Europa Insurance Group에 속하는 보험회사 중 하나임. Talanx AG의 자회사인 Talanx International AG가 TU Europa S.A.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함.

〈표 6〉 일본생명의 해외 인수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시일	인수대상기업명	국가	발표된 총가치	거래현황	거래유형
2008월 7월	Frank Russell Co[25]	미국	N/A	완료	지분매입
2009년 9월	푸르덴셜 파이낸셜	미국	500	완료	인수
2011년 3월	Reliance 생명보험	인도	679	완료	지분매입
2011년 7월	Allianz Finance II BV	독일	724	완료	인수
2012년 1월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td	인도	288	완료	지분매입
2013년 4월	Post Advisory Group LLC	미국	N/A	완료	지분매입

자료: 일본생명, Bloomberg.

■ 2013년 6월 일본생명과 미츠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인도의 Reliance Group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에 출자함.

○ 이는 인도 은행업에 진출하여 투자신탁이나 생명보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함임.

- 2011년 인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 국민 중 은행 계좌 보유 비중은 50%이며 7명 중 1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음.

○ 일본생명과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의 출자 지분은 각각 5%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다이이치생명

■ 일본 다이이치생명은 2013년 6월 인도네시아 파닌생명 지분 40%를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 M&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다이이치생명의 파닌생명 지분 인수 금액은 3억 3,650만 달러(3조 3,000억 루피아)이며 파닌생명 지주회사인 파닌 인터내셔널의 지분 36.8%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비해 보험침투도가 낮고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보험시장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외국계 보험회사 소유지분 상한선(80%)이 높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5) 1936년 설립된 미국 Russell 투자그룹의 자회사로서 1999년 미국의 Northwestern Mutual 생명보험회사에 합병되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인도와 태국의 외국계 보험회사 소유지분 상한선은 각각 26%, 49%임.

■ 다이이치생명은 사업 확대를 위해 중장기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대만, 미국 등의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입하였음.

○ 다이이치생명은 2008년 태국의 Ocean Life Insurance Co와 대만의 신콩 파이낸셜 홀딩을 인수하였고 같은 해 호주의 TAL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12년 미국의 제너스 캐피털 그룹을 인수하였음.

〈표 7〉 다이이치생명의 해외 인수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시일	인수대상기업명	국가	발표된 총가치	거래현황	거래유형
2008년 7월	Ocean Life Insurance Co	태국	95	완료	인수
2008년 8월	TAL	호주	168	완료	지분매입
2008년 8월	TAL	호주	167	완료	지분매입
2008년 10월	신콩 파이낸셜 홀딩	대만	190	완료	인수
2010년 12월	TAL	호주	1,207	완료	인수
2011년 11월	China Huadian Corp	중국	79	합작취소	합작
2012년 8월	제너스 캐피털 그룹	미국	N/A	완료	인수
2013년 6월	파닌생명	인도네시아	337	완료	지분매입

자료: 다이이치생명, Bloomberg.

○ 또한 다이이치생명은 말레이시아 은행인 AMMB 홀딩스의 생명보험 지분 입찰에도 참여하였고 향후 2년간 베트남, 호주, 인도, 태국 등 해외 M&A에 3,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임.

- 동남아시아 시장은 개인소득 및 위험 인지도 증가로 인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26)]

26) 「World Insurance in 2012」, Sigma, Swiss Re, 2013. 6.

(3) 메이지야수다생명

■ 일본 메이지야수다생명은 태국 보험업계 3위인 태국생명보험(Thai Life Insurance Public Company Ltd)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할 계획임.

○ 인수 금액은 약 7억 달러로, 일본 보험회사의 아시아 진출 사례 중 최대 규모임.

○ 현재 태국의 세대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20%로 저조하지만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험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메이지야수다생명은 성장동력 확보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독일,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에서 M&A를 확대하고 있음.

○ 메이지야수다생명은 2010년 독일의 Talanx AG, 인도네시아의 Avrist Assurance PT를 인수하였고 2011년 폴란드의 TU Europa S.A.를 인수하였음.

〈표 8〉 메이지야수다생명의 해외 인수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시일	인수대상기업명	국가	발표된 총 가치	거래현황	거래유형
2010년 11월	Talanx AG	독일	N/A	완료	인수
2010년 11월	Avrist Assurance PT/Jakarta	인도네시아	5	완료	인수
2011년 12월	Towarzystwo Ubezpieczeniowe Europa S.A.	폴란드	N/A	완료	인수
2012년 5월	Avrist Assurance PT/Jakarta	인도네시아	N/A	진행 중	인수
2013년 7월	태국생명보험	태국	713	진행 중	인수

자료: 메이지야수다생명, Bloomberg.

다. 향후 전망

■ 일본은 적극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일본 보험회사의 M&A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성장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위기의식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합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27] 확대와 인구 증가로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M&A가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

27) OECD(2010)는 중산층을 2005년 PPP기준 연평균 지출 규모가 3,650달러에서 3만 5,500달러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함.

〈참 고 문 헌〉

박신애(2013),「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윤석희(2013),「인도 주요 기업, 은행 사업 진출 위해 경쟁 중」, 해외투자속보, KOTRA global window.

이부형(2013. 4),「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Global Insight(2013. 10).

Homi Kharas(2010. 06),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285, OECD Development Centre.

Swiss Re(2013. 06), Sigma "World Insurance in 2012".

다이이치생명(http://www.dai-ichi-life.co.jp/english/).

메이지야수다생명(http://www.meijiyasuda.co.jp/english/).

일본생명(http://www.nissay.co.jp/english/news/).

Forbes Global 500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3/full_list/?iid=G500_sp_full).

Ⅲ. 해외보험시장 동향

1.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미국과 유럽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9월 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반면 일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경우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달러와 엔화가치는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로와 위안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가의 경우,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부채한도 협상 관련 우려 등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5,200포인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유럽, 일본, 중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가. 금리

■ 3/4분기 미국 국채수익률(10년 만기)은 주요 경제지표 개선, 9월 양적완화축소 실시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 들어 미국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2/4분기 미국 경제지표가 회복세[1]를 보임에 따라 7월 FOMC 회의에서 올해 안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 종료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8월 말 국채수익률은 6월 말 2.49% 대비 29.8bp 상승한 2.78%를 기록함.

○ 그러나 9월 들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여 9월 30일 2.61%에 이름.

○ 10월 1일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미국 정부 디폴트 우려로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0월 16일[2] 잠정예산집행 및 정부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합의된 이후 양

1) 2/4분기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 2.5%로 전분기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이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7.6%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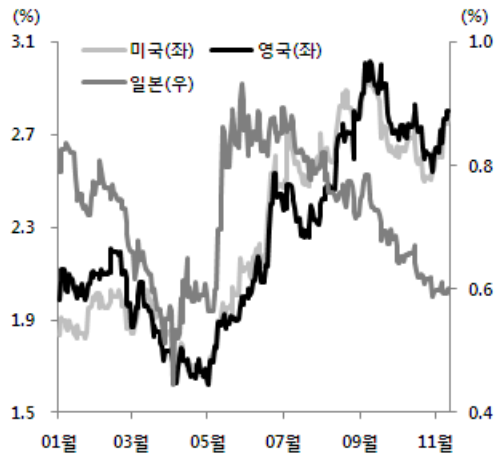
2) 현지시간.

적완화 축소시기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3]으로 국채 금리는 10월 30일 2.54%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11월 들어 경제지표 개선[4]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여 11월 11일 현재 2.75%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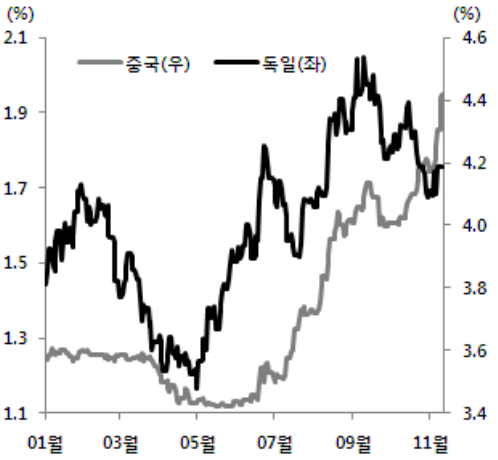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국채(10년물) 수익률 추이

〈그림 1-1〉 미국, 영국, 일본



자료: Bloomberg.

〈그림 1-2〉 중국, 독일



자료: Bloomberg.

■ 독일과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유럽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며 9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중순 이후 유로존 신용시장 침체 우려,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음.

○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월 말 1.728%에서 9월 11일 2.045%까지 31.7bp 상승하였다가 11월 11일 현재 1.754%로 하락함.

○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월 말 2.441%에서 9월 18일 3.002%까지 56.1bp 상승하였다가 11월 11일 현재 2.804%로 하락함.

3) 주요 기관들은 1주일간의 연방정부 폐쇄로 2013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0.1~0.2%(연율 기준)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JP Morgan과 UBS 등 주요기관은 양적완화 축소시기가 2013년 12월 말에서 2014년 초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함.

4) 미국 9월 산업생산은 8월(+0.4%)대비 0.6% 증가하였으며,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9월(55.0)보다 1.2p 상승한 56.4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0만 4,000명으로 9월(16만 3,000명)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7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11월 11일 0.597%를 기록, 7월 1일 0.894% 대비 29.7bp 하락함.

○ 일본은행은 지난 4월 이후 연간 84조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로 3/4분기 일본 국채를 3조 2,000억 엔(장기 채권 1조 엔) 순매도 하였는데 이는 2008년 4/4분기 9조 5,000억 엔 순매도 이후 최대 규모임.

나. 환율

■ 달러인덱스는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 양적완화 축소 지연, 미국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2/4분기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 확대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었음.

○ 또한 미국 연방정부 폐쇄와 이로 인한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전망으로 달러가치는 11월 11일 현재 81.09를 기록하며 6월 말 83.14에 비해 2.47%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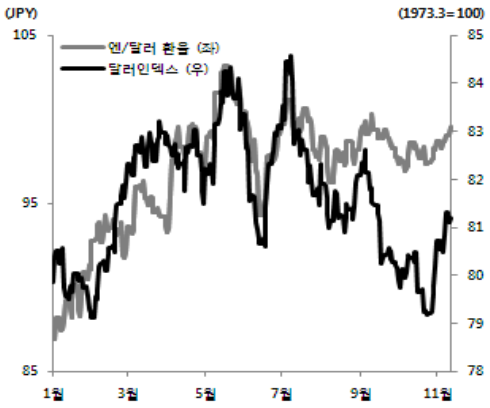
■ 7월 이후 엔/달러환율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엔화 수요와 달러화 약세 지속으로 7월~11월 평균[5] 98.6엔을 기록하였음.

○ 미국의 양적완화 관련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속으로 엔화 가치 하락폭은 제한적임.

○ 또한 미국 양적완화 축소시기 지연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11월 11일 엔/달러 환율은 6월 말과 같은 수준인 99.42엔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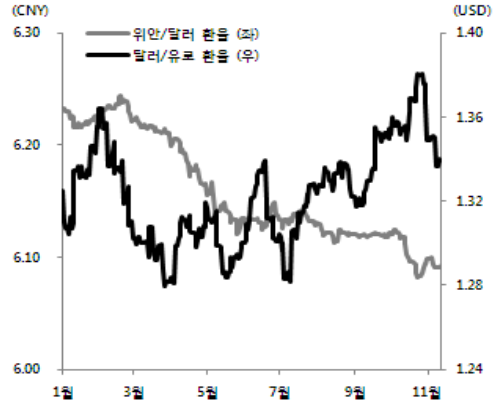
5) 2013년 7월 1일~2013년 11월 11일 평균.

〈그림 2〉 엔/달러 환율과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3〉 위안/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달러/유로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기 지연과 유로존 경기 회복세로 6월 말 1.30달러에서 11월 11일 현재 1.34달러로 상승함.

○ 7월 ECB가 저금리 장기화 계획[6]을 발표함에 따라 달러/유로 환율은 7월 9일 1.286 달러까지 하락함.

○ 그러나 2/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독일(+2.6%)과 프랑스(+1.5%)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순 이후 ECB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7]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위안/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되면서 대규모의 글로벌 핫머니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안/달러 환율은 11월 25일 현재 6.09 위안까지 하락함.

6) ECB는 향후 상당기간 금리는 현재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가능성, OMT(무제한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활용의지 등도 재확인함.

7) Reuters 서베이에 따르면 트레이더 20명 중 12명이 ECB의 추가 LTRO 발표를 예상함(한국은행 2013.10).

-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7.8%를 기록하였고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며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됨.

다. 주가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실적 향상, 양적완화 유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폐쇄 및 디폴트 우려 등으로 7월 이후 15,200포인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7월에는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8]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전망[9], 기업 실적 개선[10] 등으로 6월 말 대비 4.0% 상승한 15,499.54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 등으로 8월 말 14,810.31포인트까지 하락함.

○ 9월 들어 미국 주가는 경제지표 개선과 Fed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발표, 시리아 사태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하락하였음.

○ 10월에는 연방정부 폐쇄와 이로 인한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Janet Yellen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 타결, 양적완화규모 축소 시기 연기 가능성 등으로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 11월 11일 현재 15783.10포인트를 기록함.

■ 유럽 Stoxx 지수는 포르투갈 및 이집트의 정정불안, 경제지표 부진 등에도 ECB의 경기부양기조 유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유럽 Stoxx 지수는 8월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함[11]에 따라 6월 말 2,602.59포인트에서 9월 말 2,903.35포인트로 11.6% 상승함.

---

8) 7월 공개된 Fed의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평가함.

9) Moody's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10)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 2분기 실적을 공개한 260개 기업 중 순이익은 73%가, 매출액은 57%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11) ECB는 통화정책 의결문을 통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한다는 forward Guidance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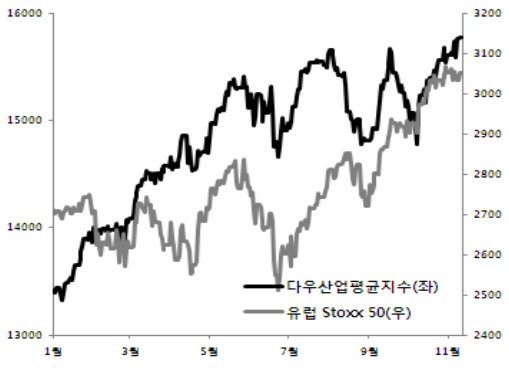
○ 10월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 지연,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경제 회복과 11월 ECB의 기준금리 인하[12]로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1월 11일 현재 3,052.83포인트를 기록함.

■ 일본 닛케이 지수는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엔화 강세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경제지표 개선, 소비세 인상안 결정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

○ 닛케이 지수는 6월 말 13,677.32포인트에서 8월 말 13,388.86포인트까지 2.1%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우려에 따른 신흥국 및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강세 등이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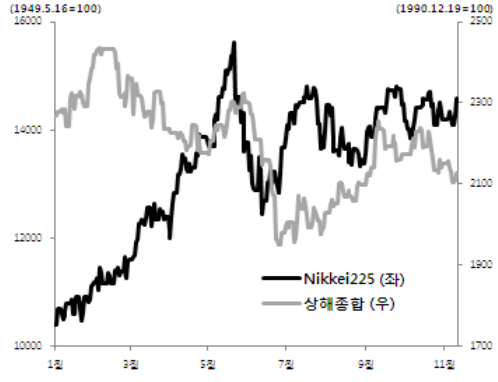
○ 그러나 9월 들어 신흥국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우려 완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 이로 인한 정부 재정건전화와 엔화 약세, 법인세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 11월 11일 현재 14,269.84포인트를 기록함.

〈그림 4〉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5〉 일본과 중국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3/4분기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와 유동성 경색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10월에도 3/4분기 경제성

12) 현지시간 11월 7일, ECB는 물가상승 둔화, 실업률 상승, 유로화 강세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인하함.

장이 전분기대비 확대되면서 상승하였음.

○ 3/4분기 상해종합지수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위안화 강세, 경기 둔화 우려 지속[13]에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14],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15], 인도 등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6월 말 1,979.2포인트에서 9월 말 2174.7포인트까지 9.9% 상승함.

○ 10월 들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7.8%를 기록하여 상해종합지수는 2,229.24포인트까지 상승하였으나 4/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임(11월 11일 현재 2,109.5포인트).

2. 글로벌 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중국 인보험이 19.5% 고성장한 반면 영국과 일본 생명보험은 각각 -5.7%, -7.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보장성 생명보험이 4% 성장한 가운데 연금보험은 1.2% 감소함. 중국 인보험의 고성장은 기저효과 및 신상품 출시에 따른 것이며, 영국은 일시납 보험료의 감소, 일본은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으로 지목됨. 미국의 경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보장성 생명보험 성장을 주도함.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2.6%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15.4%의 고성장을 나타냄. 일본과 중국의 손해보험 성장은 자동차보험시장의 확대에 기인함.

◘ 미국 동향[16]

가. 생명보험

13) IMF는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13년과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1%, 8.3%에서 7.8%, 7.7%로 하향 조정함.

14) 중국 상무부의 내수소비와 대외무역 개선 조치 검토 계획 언급, 국무원의 조선산업 육성계획안 발표, 국가개발위의 하반기 10대 도시철도건설 프로젝트 착공 계획 발표 등.

15) 인민은행은 2013년 8월부터 역RP 발행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

16)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2013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은 신규 연납화 보험료[17]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 성장하였는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성장세를 주도하였음.

○ 생명보험 상품 중 비중이 가장 크고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유니버셜보험의 신규 연납화 보험료는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indexed UL)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 유니버셜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1% 증가에 그침.

-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은 저금리와 주가지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23.2%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그러나 장기보장성 유니버셜보험(lifetime guarantee UL)은 2013년 초 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큰 폭의 신규 보험료 감소세를 나타냄.

○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보장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2/4분기에도 5% 성장함.

○ 정기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정기보험으로 정기보험 수요가 이동하면서 정체를 보여왔으나 보험회사들이 전통형 정기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면서 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시장 안정으로 전년동기대비 9% 성장하였으나 이는 특정 보험회사의 신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며, 이 회사를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3월 말 14,500포인트 수준이던 다우존스지수는 2013년 6월 말 15,000포인트에 접근함.

■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의 경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비중이 확대되고 보험료 증가가 부진한 유니버셜보험의 비중이 소폭 감소함.

○ 유니버셜보험 비중은 41%로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중이 각각 33%, 21%를, 변액유니버셜보험이 5%의 비중을 차지함.

17)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셜	6	4	20	8	43	8	1	41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6	-4	16	0	8	10	9	5
정기	-3	-1	4	0	19	3	6	21
종신	9	5	6	7	30	7	5	33
계	4	3	12	6	100	7	4	100
연납화 보험료	2,394	2,291	2,845	9,796		2,439	2,485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3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565억 달러를 기록함.

○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2011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 2/4분기 신규보험료는 전분기대비 9% 가량 증가함.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38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감소폭은 2012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 또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1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 인덱스형 연금의 경우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신규보험료가 90억 달러를 상회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157.9	36.9	38.7	36.8	35.0	147.4	35.5	38.2
	증가율	12.4	-6.6	-4.7	-7.5	-7.9	-6.6	-3.8	-1.3
	비중	66.2	67.3	67.9	67.8	67.0	67.5	69.2	67.6
정액연금	보험료	80.5	17.9	18.3	17.5	17.2	70.9	15.8	18.3
	증가율	-1.7	-10.5	-14.1	-13.8	-9.0	-11.9	-11.7	-0.9
	비중	33.8	32.7	32.1	32.2	33.0	32.5	30.8	32.4
합계	보험료	238.4	54.8	57.0	54.3	52.2	218.3	51.3	56.5
	증가율	7.2	-7.9	-7.9	-9.7	-8.3	-8.4	-6.4	-1.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Annuities.*

■ 2013년 2/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1.0%, 독립설계사가 15.3%, 증권중개인, 은행, 직접판매 등이 각각 13.2%, 14.8%, 8.3%의 비중을 차지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가 5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의 경우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은행	13.5	13.7	13.1	12.9	14.1	14.8
전속설계사	23.8	21.8	21.9	23.7	22.4	21.0
직접판매	8.8	9.6	8.3	8.9	8.7	8.3
독립중개인	23.2	23.2	25.0	23.1	25.0	24.9
독립설계사	16.3	15.6	16.4	16.5	15.3	15.3
증권중개인	12.6	14.0	13.4	12.5	12.4	13.2
기타	1.8	2.1	1.8	2.3	2.1	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3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18]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Non-cancellable[19]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13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함.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1.1% 증가하였으나 최근 Non-multilife[20] 보험 판매 감소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C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347.9	107.6	67.5	75.0	77.9	327.9	96.3	65.3
		증가율	1.1	0.4	-11.2	-8.2	-6.3	-5.7	-10.4	-3.3
		구성비	70.0	75.4	65.9	65.2	64.9	68.3	73.5	64.4
	Non-cancellable	건 수	149.2	35.1	34.9	40.0	42.8	152.8	34.7	36.3
		증가율	6.2	5.0	2.5	-2.1	4.8	2.5	-1.1	3.8
		구성비	30.0	24.6	34.1	34.8	35.6	31.8	26.5	35.8
	전체	건 수	497.1	142.7	102.4	115.0	120.1	480.2	131.0	101.4
		증가율	2.6	1.5	-7.0	-6.1	-3.1	-3.4	-8.2	-1.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217.6	64.5	46.7	49.5	51.3	212.0	57.9	45.0
		증가율	3.1	0.6	-4.3	-4.0	-3.5	-2.6	-10.3	-3.6
		구성비	42.0	47.6	37.6	37.1	38.3	40.2	45.6	36.5
	Non-cancellable	보험료	300.9	71.1	77.4	83.8	82.7	314.9	69.2	78.2
		증가율	7.2	6.8	5.8	3.3	3.2	4.7	-2.7	1.1
		구성비	58.0	52.4	62.4	62.9	61.7	59.8	54.4	63.5
	전체	보험료	518.5	135.6	124.0	133.3	133.9	526.9	127.0	123.2
		증가율	5.4	3.8	1.8	0.5	0.6	1.6	-6.3	-0.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9)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20) Multilife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라. 손해보험

■ 2013년 2/4분기 미국 손해보험 보험영업적자는 원수보험료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64.7%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1,2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으로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금융위기 이후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후 2010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836억 달러를 기록함.

- 미국 보험단체인 ISO에 의하면 2013년 2/4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대재해 손실은 전년동기에 비해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원수보험료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64.7% 감소한 22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합산비율도 104.8%에서 4.0%p 하락한 100.8%로 개선됨.

- 2013년 2/4분기 합산비율은 1986년 이후 미국 2/4분기 합산비율 평균 수준인 104.9%를 크게 하회하면서 최저 수준이었던 2009년 99.5%에 근접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현자본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118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 실현자본이익은 주식시장 호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미실현자본이익 또한 주식시장 호조로 전년동기 27억 달러 손실에서 47억 달러 이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적자 축소와 총투자영업이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48.0%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은 1.9%p 상승한 6.7%로 개선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28.7%에서 2013년 2/4분기 -22.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 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3%로 나타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2				CY2013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14,670	121,769	108,109	456,597	117,110	120,048
	증가율	4.5	5.1	4.9	4.3	4.1	4.7
지급보험금	금액	84,800	82,982	91,247	335,123	74,214	83,590
	증가율	-11.1	-7.7	13.4	-2.7	-1.9	-1.4
보험영업이익	금액	-6,039	529	-9,050	-14,753	5,192	-1,777
	증가율	-68.6	-105.0	1003.7	-57.3	1280.9	-70.6
계약자 배당금	금액	287	315	998	2,119	552	454
	증가율	-17.5	21.2	27.9	14.5	6.2	58.2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6,326	214	-10,049	-16,873	4,640	-2,231
	증가율	-67.7	-102.0	528.1	-53.7	-3322.2	-64.7
투자영업이익	금액	12,143	11,410	12,585	47,713	11,385	11,786
	증가율	-0.6	-2.7	0.7	-2.7	-2.3	-2.9
실현자본이익	금액	1,025	1,245	3,251	6,201	1,380	2,502
	증가율	-60.8	-33.9	89.2	-14.0	100.3	144.1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3,168	12,655	15,836	53,915	12,765	14,288
	증가율	-11.3	-7.0	11.4	-4.2	3.4	8.5
세전 영업이익	금액	7,205	12,058	2,713	33,134	15,885	10,029
	증가율	-198.1	451.6	-76.5	120.8	33.8	39.2
당기순이익	금액	6,880	10,433	6,390	33,246	14,394	10,182
	증가율	-324.5	206.2	-42.8	71.9	40.9	48.0
자기자본(surplus)	금액	571,346	583,489	586,874	586,874	607,737	613,988
	증가율	2.2	7.6	6.6	6.6	5.9	7.5
지급준비금	금액	573,662	576,442	579,278	579,278	572,504	577,410
	증가율	-0.2	-0.4	1.2	1.2	0.2	0.7
합산비율		104.8	98.5	110.4	103.2	94.8	100.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3. 9), ISO RELEASE: P/C Insurers' Bottom Line Improved In First-Half 2013 On Stronger Underwriting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영국 동향[21)]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전체〉

■ 2013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 보험료[22)] 기준으로 121억 3,790만 파운드이며, 전년동기보다 7억 3,390만 파운드 감소함.

○ 영국의 경기회복세[23)]는 2/4분기도 지속되었으나, 생명보험 전체 신규 보험료는 비중이 큰 일시납 보험료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함.

■ 2013년 2/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5.2% 증가한 21억 2,27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최근 경기회복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분할납 보험료는 2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에 도달함.

■ 2013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한 100억 1,5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3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감소함.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3년 2/4분기 분할납 기준 투자·저축 보험료는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함.

○ 분할납 투자·저축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사혼합저축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함.

---

21)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2)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23) 영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0.4%, 2/4분기 0.7%를 기록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5.9	6.7	6.6	26.3	4.7	5.5
	증가율	- 35.4	- 29.1	- 12.3	- 24.9	- 36.6	- 6.8
	구성비	0.4	0.6	0.4	0.5	0.3	0.3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914.6	801.9	1,152.4	3,779.4	1,155.3	1,164.5
	증가율	- 8.8	0.2	47.4	8.9	26.9	27.3
	구성비	66.9	66.3	72.2	68.4	66.1	54.9
퇴직연금	보험료	166.5	131.5	153.6	613.6	336.0	670.1
	증가율	- 55.8	- 14.8	- 20.3	- 37.9	110.0	302.5
	구성비	12.3	10.9	9.6	11.1	19.2	31.6
역외영업	보험료	3.8	5.8	4.1	18.1	4.0	4.7
	증가율	- 56.0	- 18.4	- 21.9	- 43.2	- 9.4	23.7
	구성비	0.3	0.5	0.3	0.3	0.2	0.2
보장성보험	보험료	277.0	263.5	278.8	1,090.8	248.0	277.9
	증가율	4.2	4.0	15.6	7.2	- 8.8	0.3
	구성비	20.3	21.8	17.5	19.7	14.2	13.1
합계	보험료	1,367.8	1,209.3	1,595.4	5,528.3	1,748.0	2,122.7
	증가율	- 17.9	- 1.2	29.9	- 0.3	29.1	55.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053.4	1,935.6	2,122.5	8,103.7	1,257.0	957.3
	증가율	- 12.0	- 6.5	3.7	- 9.7	-36.9	- 53.4
	구성비	17.8	18.5	16.4	17.6	10.7	9.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4,756.1	3,503.5	3,803.2	15,751.4	3,766.0	3,978.7
	증가율	- 5.5	- 7.5	17.2	- 1.8	2.1	- 16.3
	구성비	41.3	33.6	29.4	34.1	32.2	39.7
퇴직연금	보험료	3,541.2	3,765.3	5,656.5	17,350.5	5,658.4	4,029.9
	증가율	4.5	65.8	- 11.7	14.6	29.3	13.8
	구성비	30.8	36.1	43.7	37.6	48.3	40.2
역외영업	보험료	1,102.8	1,182.4	1,299.2	4,726.7	977.5	1,004.2
	증가율	- 26.4	- 28.9	7.2	- 20.2	- 14.4	- 8.9
	구성비	9.6	11.3	10.0	10.2	8.3	10.0
보장성보험	보험료	50.5	50.4	49.9	204.0	48.9	45.1
	증가율	- 7.0	- 1.7	- 10.7	- 5.3	- 8.2	- 10.7
	구성비	0.4	0.5	0.4	0.4	0.4	0.5
합계	보험료	11,504.0	10,437.1	12,931.4	46,136.3	11,707.8	10,015.2
	증가율	- 6.5	6.1	- 0.2	- 0.4	4.0	- 1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반면,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투자·저축 보험료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과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53.4% 감소함.

○ 변액연동채권은 전년동기대비 36.3% 감소하였고, 유배당채권은 전년동기대비 37.9%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3년 2/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기준 보험료는 개인연금계좌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억 4,990만 파운드 증가함.

○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보험료는 personal pensions과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5.9% 감소함.

○ 단체개인연금계좌보험료는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 sponsored stakeholders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는 증가 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감소한 39억 7,87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6%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6% 감소함.

○ 개인연금계좌 중 personal pensions, stakeholder pension, SIPP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4.9%, 36.6% 33.3% 감소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3년 2/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영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DC형 퇴직연금 및 맞춤형퇴직연금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02.5% 증가한 6억 7,010만 파운드를 기록함.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1.7% 감소한 13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한 1억 4,0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17.7배 증가함.

■ 반면,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함.

○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억 8,870만 파운드 증가함.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4.2%, 30.6% 감소함.

○ 경기불황기에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함.

○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ulk Buyout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3년 2/4분기 분할납 역외영업 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됨.

○ 전체 분할납 보험에서 1% 미만을 차지하는 역외영업 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함.

■ 2013년 2/4분기 일시납 기준 역외영업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한 10억 4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860만 파운드 감소함.

○ 투자채권(investment bonds)은 전년동기대비 55.2% 증가한 반면 개인채권(personal bonds)과 기타 일시납 역외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23.7%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전체 분할납 보험료의 13.1%를 차지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2억 7,790만 파운드를 기록함.

○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90만 파운드 증가함.

○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고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함.

○ 반면 단체보장성 보험[24]은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함.

■ 전체 일시납 보험료에서 0.4%를 차지하는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전년동기대비 67.3% 감소함.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3년 2/4분기 분할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無 자문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독립자문과 제한적 자문은 감소함.

○ 독립 자문과 제한적 자문의 비중은 각각 62.1%에서 58.8%, 26.6%에서 11.2%로 감소하였으며 無 자문은 18.1%에서 41.2%로 증가함.

○ 독립 자문 모집은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79.1%, 89.3%, 68.6%를 기록함.

○ 제한적 자문 모집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도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無 자문 모집 비중이 가장 컸던 보험 종목은 투자·저축 보험, 퇴직연금으로 나타남.

- 투자·저축 보험, 퇴직연금의 無 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80.6%, 81.7%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2013년 2/4분기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과 제한적 자문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無 자문은 감소함.

○ 독립 자문과 제한적 자문의 비중은 각각 62.8%에서 67.4%, 10.7%에서 16.9%로 증가하였으며 無 자문은 18.1%에서 15.7%로 감소함.

○ 독립 자문 판매 비중은 전 종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의 독립 자문 판매 비중은 각각 74.2%, 82.1%, 45.7%, 89.5%, 84.1%를 기록함.

○ 無 자문 모집 비중은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24)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

〈표 8〉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25)]

(단위: %)

구분	독립 자문[1)]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2)] (restricted advice)		無 자문[3)] (non-advised)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9.4	74.2	4.9	21.6	80.6	4.2
퇴직연금계좌	79.1	82.1	12.7	5.3	20.9	12.6
퇴직연금	18.3	45.7	6.1	29.2	81.7	25.2
역외영업	89.3	89.5	1.3	8.7	10.7	1.7
보장성보험	68.6	84.1	17.9	15.0	29.4	0.9
전체	58.8	67.4	11.2	16.9	41.2	15.7

주: 1)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2) 단일 전속 또는 다중 전속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3)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분할납 및 일시납 보험료는 2013년 2/4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됨.

〈표 9〉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비중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분할납		일시납	
	CY 2013 1/4	CY 2013 2/4	CY 2013 1/4	CY 2013 2/4
투자 및 저축보험	0.1	0.2	292.4	115.7
퇴직연금계좌	10.0	10.8	43.2	31.6
퇴직연금	0.2	-	57.1	38.8
역외영업	0.0	0.1	86.2	99.2
보장성보험	36.3	31.9	2.8	2.2
전체	46.6	43.0	481.6	287.4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보장성보험 판매부진으로 전분기대비 7.7% 감소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판매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40.3% 감소함.

25)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시행으로 보험 판매채널 분류 기준이 2013년 1/4분기부터 변경됨. RDR은 자문자가 상품공급자의 판매전략이나 소비자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고 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일본 동향[26)]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3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한 18조 4,192억 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성장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한 15조 7,838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에 속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0%, 16.9% 감소하였음.
- 또한,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8.4%, 11.4% 감소하였음.

○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은 변액연금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액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한 1조 5,929억 엔을 기록함.

- 정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3.9% 감소한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일본 경기와 주식시장 회복세로 변액보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27)] 포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한 1조 424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78.3% 증가하였고, 반면에 단체신용생명보험은 93.5% 감소하였음.

---

26)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7)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이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4
개인	금액	167,733	178,254	182,502	203,557	732,046	157,838
	증가율	8.4	2.4	2.0	19.8	8.0	-5.9
	구성비	84.6	89.7	88.3	83.4	86.3	85.7
사망	금액	137,851	149,663	153,505	172,901	613,920	130,239
	증가율	9.1	3.2	5.0	24.0	10.2	-5.5
	구성비	69.5	75.3	74.3	70.8	72.4	70.7
- 정기보험	금액	68,568	77,959	79,882	87,920	314,329	66,488
	증가율	27.0	22.1	25.5	42.0	29.1	-3.0
- 종신보험	금액	38,817	41,954	42,245	51,891	174,907	32,248
	증가율	17.0	5.6	1.7	39.4	15.3	-16.9
생사 혼합	금액	28,775	27,536	27,837	28,965	113,112	26,199
	증가율	6.3	0.5	-9.9	0.7	-0.9	-9.0
	구성비	14.5	13.9	13.5	11.9	13.3	14.2
양로보험[2]	금액	14,944	14,287	13,783	14,334	57,348	13,696
	증가율	4.1	-3.3	-4.4	-8.3	-3.1	-8.4
기타	금액	13,199	12,607	13,307	13,809	52,922	11,690
	증가율	14.2	2.0	-6.0	-2.5	1.3	-11.4
생존	금액	1,107	1,055	1,159	1,692	5,014	1,400
	증가율	-21.9	-37.1	-38.2	2.0	-24.3	26.5
	구성비	0.6	0.5	0.6	0.7	0.6	0.8
개인연금	금액	18,472	17,790	20,128	29,116	85,507	15,929
	증가율	12.0	-4.4	-23.0	58.9	7.5	-13.8
	구성비	9.3	8.9	9.7	11.9	10.1	8.6
- 정액연금	금액	17,486	16,475	19,058	27,219	80,238	13,311
	증가율	14.3	-5.3	-24.2	58.9	7.0	-23.9
- 변액연금	금액	986	1,315	1,070	1,897	5,268	2,618
	증가율	-17.1	8.3	8.0	58.3	14.7	165.5
단체보험	금액	12,158	2,745	4,029	11,484	30,415	10,424
	증가율	15.1	-32.4	-11.1	3.9	0.7	-14.3
	구성비	6.1	1.4	1.9	4.7	3.6	5.7
- 단체정기[3]	금액	5,609	2,620	3,886	11,218	23,333	9,999
	증가율	-38.3	-35.1	-10.5	25.0	-11.8	78.3
- 단체신용 생명	금액	6,549	125	142	266	7,082	426
	증가율	346.1	363.0	-24.9	-87.2	88.0	-93.5
합계	금액	198,363	198,789	206,659	244,157	847,968	184,192
	증가율	9.1	1.0	-1.4	22.5	7.7	-7.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3 1/4분기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0.3% 감소한 344조 414억 엔을 기록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3,354	-5.1	32,947	-1.2	32,220	-2.2	35,749	11.0	33,974	-5.0
단기자금	24,137	-3.8	22,301	-7.6	16,187	-27.4	27,669	70.9	16,023	-42.1
매입금전채권	28,890	-0.01	28,826	-0.2	30,386	5.4	30,254	-0.4	27,000	-10.8
금전신탁	19,658	-2.4	20,683	5.2	19,653	-5.0	20,599	4.8	20,555	-0.2
유가증권	2,567,059	-0.3	2,608,694	1.6	2,694,451	3.3	2,782,449	3.3	2,798,208	0.6
- 국채 [2)]	1,425,411	0.9	1,450,710	1.8	1,461,980	0.8	1,487,692	1.8	1,491,967	0.3
- 지방채	134,369	2.1	137,419	2.3	140,029	1.9	139,347	-0.5	138,488	-0.6
- 사채	253,288	-0.1	253,280	0.0	252,964	-0.1	251,552	-0.6	250,035	-0.6
- 주식	129,284	-12.3	128,889	-0.3	139,223	8.0	167,257	20.1	171,533	2.6
- 외화증권	472,095	0.6	484,124	2.5	534,412	10.4	559,865	4.8	568,081	1.5
대출금	412,639	-2.2	411,606	-0.3	404,985	-1.6	402,446	-0.6	393,975	-2.1
부동산	64,597	-0.8	64,307	-0.4	64,538	0.4	63,748	-1.2	63,196	-0.9
운용자산	3,176,195	-0.6	3,214,337	1.2	3,286,246	2.2	3,390,880	3.2	3,376,430	-0.4
비운용자산	72,894	0.2	73,291	0.5	66,289	-9.6	59,101	-10.8	63,984	8.3
총자산	3,249,089	-0.6	3,287,628	1.2	3,352,535	2.0	3,449,981	2.9	3,440,414	-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총자산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279조 8,208억 엔을 기록하였음.

- 지방채와 사채가 각각 0.6%씩 감소하였지만 유가증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와 외화증권이 각각 0.3%, 1.5% 증가하며 유가증권이 전체적으로 상승함.

○ 한편,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 외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감소하였음.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대출금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5.0%, 42.1%, 0.2%, 2.1% 감소하였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3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성장하였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원수보험료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2조 1,714억 엔을 기록함.

〈표 12〉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2]	3,425	3,352	3,795	3,562	14,134	3,432
	증가율[3]	1.2	3.6	5.0	0.6	2.6	0.2
	구성비	16.2	16.8	18.6	17.5	17.2	15.8
해상	보험료	512	472	475	520	1,979	562
	증가율	-1.7	-1.9	1.3	8.8	1.5	9.8
	구성비	2.4	2.4	2.3	2.6	2.4	2.6
운송	보험료	171	150	155	156	632	172
	증가율	3.0	1.4	0.6	1.3	1.6	0.6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9,122	8,780	9,039	8,987	35,927	9,407
	증가율	3.5	3.9	3.0	3.0	3.4	3.1
	구성비	43.1	44.0	44.2	44.2	43.5	43.3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410	2,231	2,214	2,453	9,308	2,540
	증가율	8.5	0.9	-0.1	8.2	4.4	5.4
	구성비	11.4	11.2	10.8	12.1	11.2	11.7
상해	보험료	2,882	2,629	2,497	2,288	10,295	2,772
	증가율	-0.4	-4.3	-4.9	-5.0	-3.6	-3.8
	구성비	13.6	13.2	12.2	11.3	13.4	12.8
특종	보험료	2,650	2,361	2,270	2,366	9,648	2,828
	증가율	4.4	3.1	5.2	5.8	4.6	6.7
	구성비	12.5	11.8	11.1	11.6	11.5	13.0
합계	보험료	21,171	19,975	20,445	20,331	81,923	21,714
	증가율	3.1	2.1	2.2	2.6	2.5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일반화재보험과 지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3,432억 엔을 기록함.

- 소비세 인상[28]을 앞두고 주택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보험 수요도 증가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562억 엔을 기록함.

- 화물, 운송의 활성화로 인해 해상보험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9,407억 엔을,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2,540억 엔을 기록함.

- 2013년 4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료가 13.5%로 인상되어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증가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2,772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2,828억 엔을 기록함.

- 배상책임보험과 특종보험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자산 현황〉

■ FY2013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금전신탁과 유가증권 증가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한 28조 6,267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23.5% 감소한 7,102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21.2% 감소한 3,369억 엔을 기록함.

○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2.4% 감소한 4,188억 엔을 기록한 반면,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6.8% 증가한 3,023억 엔을 기록하였고 금전신탁은 31.2% 증가한 1,199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회사채 및 기타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1.3%, 11.9% 감소하였으나, 국채, 지방채, 주식,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2.3%, 0.7%, 5.7%, 3.4%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2.9% 증가한 21조 1,946억 엔을 기록함.

- 국공채(국채+지방채)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대출금과 부동산은 전분기 대비 각각 2.7%, 1.3%로 감소세가 지속됨.

28) 일본 소비세는 2014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임.

〈표 13〉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494	-18.1	7,634	1.9	6,909	-9.5	9,288	34.4	7,102	-23.5
단기자금		3,573	-6.0	5,104	42.8	3,590	-29.7	4,278	19.2	3,369	-21.2
환매조건부채권		4,159	2.2	2,904	-30.2	2,930	0.9	4,289	46.4	4,188	-2.4
매입금전채권		6,221	-7.7	4,143	-33.4	4,331	4.5	2,832	-34.6	3,023	6.8
금전신탁		541	-6.9	586	8.3	555	-5.3	914	64.7	1,199	31.2
유가증권	국채[2]	58,121	0.6	59,765	2.8	61,837	3.5	61,961	0.2	63,408	2.3
	지방채	3,852	-1.8	3,773	-2.1	3,634	-3.7	3,493	-3.9	3,516	0.7
	회사채	28,725	-1.6	27,871	-3.0	26,984	-3.2	26,708	-1.0	26,348	-1.3
	주식	51,275	-10.4	48,049	-6.3	55,109	14.7	63,484	15.2	67,114	5.7
	외화증권	45,757	5.8	45,554	-0.4	47,918	5.2	47,534	-0.8	49,157	3.4
	기타증권	2,846	-4.5	2,636	-7.4	2,728	3.5	2,725	-0.1	2,402	-11.9
	소계	190,576	-1.9	187,649	-1.5	198,210	5.6	205,905	3.9	211,946	2.9
대출금		18,986	-1.2	18,278	-3.7	17,929	-1.9	17,589	-1.9	17,123	-2.7
부동산		10,693	-0.5	10,555	-1.3	10,461	-0.9	10,429	-0.3	10,291	-1.3
운용자산		242,343	-2.5	236,854	-2.3	244,915	3.4	255,526	4.3	258,242	1.1
비운용자산[3]		31,005	-0.9	31,962	3.1	30,144	-5.7	29,071	-3.6	28,024	-3.6
총자산		273,348	-2.4	268,817	-1.7	275,060	2.3	284,598	3.5	286,267	0.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FY2013 1/4분기 말 국공채(국채+지방채)는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6조 6,924억 엔임.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 중국 동향[29)]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3년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4,36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상승하면서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35.2% 증가한 1,475억 위안, 사업비는 15.8% 증가한 585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상승하면서 전체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29)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4〉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4,835	3,698	3,544	3,412	15,488	5,151	4,362
		증가율[3)]	4.7	7.5	10.9	10.6	8.0	6.5	18.0
	인보험	금액	3,534	2,299	2,251	2,073	10,157	3,638	2,748
		증가율[3)]	1.4	3.9	8.1	6.7	4.5	2.9	19.5
	손해보험	금액	1,301	1,399	1,292	1,339	5,331	1,513	1,614
		증가율[3)]	14.8	14.0	15.9	17.1	15.4	16.3	15.4
지급보험금		금액	1,172	1,091	1,130	1,324	4,716	1,488	1,475
		증가율[3)]	19.5	11.4	23.6	25.4	20.2	27.0	35.2
	인보험	금액	599	444	400	457	1,900	758	710
		증가율[3)]	8.8	-5.7	10.5	27.7	9.1	26.5	59.9
	손해보험	금액	573	647	730	866	2,816	730	765
		증가율[3)]	33.5	27.4	32.2	24.1	28.8	27.5	18.2
사업비		금액	467	505	536	664	2,171	546	585
		증가율[3)]	21.2	15.6	15.0	11.8	15.4	16.9	15.8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3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7조 8,840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7조 2,829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6,010억 위안을 기록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상승하였음.

○ 예치금은 2조 3,40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대비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6%p 감소한 29.7%를 기록함.

○ 투자금은 4조 9,424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1.1%에서 62.7%로 확대됨.

○ 2012년 보험자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이후 보험회사들은 자산부채의 만기매칭 및 보험자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예치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투자금의 비중을 확대하였음.

〈표 15〉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58,882	61,804	63,784	68,543	68,543	70,868	72,829
	증가율[3)]	6.1	5.0	3.2	7.5	23.6	3.4	2.8
	구성비	92.5	91.2	92.4	93.2	92.2	92.4	92.4
예치금	금액	20,698	22,578	21,979	23,446	23,446	23,992	23,405
	증가율[3)]	16.7	9.1	-2.7	6.7	32.2	2.3	-2.4
	구성비	32.5	33.3	31.9	31.9	31.9	31.3	29.7
투자금	금액	38,183	39,226	41,805	45,097	45,097	46,875	49,424
	증가율[3)]	1.2	2.7	6.6	7.9	19.5	3.9	5.4
	구성비	60.0	57.9	60.6	61.3	61.3	61.1	62.7
비운용자산[4)]계	금액	4,796	5,956	5,215	5,003	5,003	5,819	6,010
	증가율[3)]	2.8	24.2	-12.4	-4.1	7.3	16.3	3.3
	구성비	7.5	8.8	7.6	6.8	6.8	7.6	7.6
총자산	금액	63,679	67,760	68,999	73,546	73,546	76,686	78,840
	증가율[3)]	5.9	6.4	1.8	6.6	22.3	4.3	2.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이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748억 위안[30]으로 전년동기대비 19.5% 증가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으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대폭 상승하였음.

■ 인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8.9%, 23.2% 및 25.3% 증가한 2,332억 위안, 292억 위안 및 124억 위안을 기록함.

○ 2012년 2/4분기 생명보험 성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상품 출시 확대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대폭 상승함.

○ 2012년 2/4분기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둔화된 반면, 신상품 출시 증가로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함.

■ 2013년 상반기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침.

○ 화보증권(Hwabao Securiti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9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2.7%를 기록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31] 수익률은 각각 -3.2%와 -3.5%를 기록함.

30)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31)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가 있음.

〈표 16〉 인보험 수입보험료[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3,534	2,299	2,251	2,073	10,157	3,638	2,748
	증가율[4)]	1.4	3.9	8.1	6.7	4.5	2.9	19.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3,203	1,962	1,945	1,799	8,908	3,224	2,332
	증가율[4)]	-0.2	1.0	6.3	5.0	2.4	0.7	18.9
	구성비	90.6	85.3	86.4	86.8	87.7	88.6	84.9
건강보험	보험료	229	237	204	193	863	295	292
	증가율[4)]	22.4	30.9	23.6	21.4	24.7	28.9	23.2
	구성비	6.5	10.3	9.1	9.3	8.5	8.1	10.6
상해보험	보험료	103	99	103	82	386	119	124
	증가율[4)]	17.9	11.2	17.0	17.1	15.6	16.0	25.3
	구성비	2.9	4.3	4.6	4.0	3.8	3.3	4.5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71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9.9% 증가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인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594억 위안, 92억 위안 및 2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8.3%, 33.3%, 14.3% 증가함.

○ 2012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급부금 만기 도래 및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로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2012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에 비해 17.1%p 급락한 6.3%에 그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에 판매된 10년 만기 생명보험과 2008년에 판매된 5년 만기 생명보험의 급부금은 약 500억 위안임.
- 2013년 2/4분기 중국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32]의 해약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42.3% 증가한 245억 위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고수익 제태크 상품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였기 때문임.

○ 2012년 2/4분기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표 17〉 인보험 지급보험금[1), 2), 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599	444	400	457	1,900	758	710
	증가율[4)]	8.8	-5.7	10.5	27.7	9.1	26.5	59.9
생명보험	보험금	503	353	297	351	1,505	644	594
	증가율[4)]	15.3	6.3	12.9	30.5	15.7	27.8	68.3
건강보험	보험금	73	69	77	79	298	89	92
	증가율[4)]	-24.0	-42.5	-1.3	19.7	-17.2	22.0	33.3
상해보험	보험금	22	21	26	27	97	25	24
	증가율[4)]	24.7	10.5	23.8	12.5	18.3	11.4	14.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함.

32)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는 중국인수생명, 핑안생명, 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으로 이들의 해약환급금은 각각 121억 위안, 20억 위안, 45억 위안, 60억 위안임.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4.2%로 전분기에 비해 1.6%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6%p 상승한 5.8%를 기록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33]의 시장점유율은 68.9%로 전분기에 비해 1.2%p 하락함.

〈표 18〉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3)]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72.9	71.5	70.2	67.8	71.0	70.1	68.9
		중소형사[2)]	23.8	23.9	24.2	25.5	24.3	25.7	25.3
		소계	96.7	95.3	94.5	93.3	95.2	95.8	94.2
	외국계		3.3	4.7	5.5	6.7	4.8	4.2	5.8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6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함.

○ 자동차 판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536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33)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인수생명, 핑안생명, 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 중국인민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9%, 11.5%, 9.6%, 7.4%, 6.6%임.

〈표 19〉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 4)]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2)]	1,301	1,399	1,292	1,339	5,331	1,513	1,614
	증가율[3)]	14.8	14.0	15.9	17.1	15.4	16.3	15.4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한 765억 위안을 기록함.

○ 2012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20〉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 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3)]	573	647	730	866	2,816	730	765
	증가율[4)]	33.5	27.4	32.2	24.1	28.8	27.5	18.2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한 98.7%를 기록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2%p 상승한 1.3%에 그침.

○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인 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5.6%, 15.8%, 12.8%의 시장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에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9%p 하락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AIG, Allianz China, Liberty Mutual로 나타남.

〈표 21〉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 3)]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6.7	65.2	65.4	64.1	65.3	65.1	64.2
		중소형사[2)]	32.1	33.6	33.3	34.7	33.4	33.8	34.5
		소계	98.8	98.8	98.8	98.8	98.8	98.9	98.7
	외국계		1.2	1.2	1.2	1.2	1.2	1.1	1.3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34)]

■ 2013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4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하락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31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1% 늘어남.

○ 2013년 2/4분기 중국 경제 성장 부진에 따른 기업연금 신규가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됨.

- 2013년 2/4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의 7.7%보다 다소 낮은 7.5%에 그침.

34)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5개가 있는데 태핑, 핑안, 인수, 창장, 태강 등임.

〈표 22〉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1)]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2)]	금액	410	207	167	127	160	662	167	146
	증가율[2)]	14.8	22.0	271.1	46.0	46.8	61.5	-19.2	-12.6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378	1,561	1,723	1,842	2,009	2,009	2,180	2,312
	증가율[3)]	32.6	13.3	10.3	6.9	9.1	45.8	8.5	6.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황진태, 변혜원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가을호 (통권 3호)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국제보험금융센터(☏3775-907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